

2008 시각예술포럼

# 시각예술의 발전 및 사회적 소통과 확산

2008

<art archives II>

제3차\_시각예술아카이브의  
네트워크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II>

## 시각예술의 발전 및 사회적 소통과 확산

- 제3차 '시각예술아카이브의 네트워크' -

- 일 시 : 2008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주 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제 : 시각예술아카이브의 네트워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기 시각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자극, 고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정책대안의 수립을 위해 2008 시각예술포럼 ‘시각예술의 발전 및 사회적 소통과 확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2008 시각예술포럼을 통해 제1기 시각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정책포럼에서 다루었던 예술가 창작환경조성, 미술시장, 세계 개선방안, 세계화, 시각예술교육의 논의 성과와 2007 시각예술포럼 ‘장’에서 다룬 시각예술과 방계예술과의 연계 및 협업 가능성 모색의 취지를 살림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시각예술 창작환경의 조성과 예술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의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시각예술전문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총4회에 걸쳐 진행될 2008 시각예술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한국 시각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예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8 시각예술포럼 기획팀



## 2008 시각예술포럼

제1차

2008년 10월 10일 성균관대학교  
시각예술전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

2차

2008년 10월 31일 국민대학교  
시각예술과 비평의 역할

---

3차

2008년 11월 14일 아르코미술관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네트워크

---

4차

2008년 11월 28일 서울시립대학교  
미술과 시각문화의 소통 또는 접점

---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목 차

● 사회 : 하 계 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발제 1	<연계> 하는 미술정보 : IFLA/ARLIS/JADS/ALC의 전개를 통하여 Bridging the distances between art information/resourc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 Some cases on IFLA/ARLIS/JADS/ALC 미즈타니 타케시 (水谷長志 / Mizutani Takeshi) 동경국립근대미술관 기획과 아트라이브러리 주임연구원	1
발제 2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한 역사 분야의 협력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History Organizations 윤 소 영 (So-young Yoon)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27
발제 3	네트워크 격차: 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고찰 Network Divide: Reflection on Networking Asia 피비 웡 (黃小燕 / Phoebe Wong)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수석 연구원	57
발제 4	인미공 라이브 아카이브 ISA Live Archive 강 성 은 (Sung-eun Ka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69

## 〈연계〉 하는 미술정보

### IFLA/ARLIS/JADS/ALC 의 전개를 통하여

Bridging the distances between art information/resourc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Some cases on IFLA/ARLIS/JADS/ALC

미즈타니 타케시

(水谷長志)

동경국립근대미술관 기획과 아트라이브러리 주임연구원



## Resume:

아무리 훌륭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한 미술도서관이 망라적으로 미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며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주제, 모든 도서관에 대하여 상호협력의 틀을 국내, 국외에서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술의 경우에는 Library(L) 뿐만 아니라 Museum(M)과 Archives(A)와도 <연계> 하면서 미술 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고의 목적은 4개의 키워드, 즉 IFLA/ARLIS/JADS/ALC를 중심으로 약 20년간에 걸친 일본의 시도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 1. 일본의 미술전문사서가 IFLA와 ARLIS를 우연히 만난 1986년

### 1.1 머리말

「2008 시각예술포럼 <Art Archives> II」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초빙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경국립근대미술관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동안 미술도서관과 각종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종사하였습니다. 국가 기관이었던 일본의 국립미술관은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이 되어 국가의 기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대학도 같은 상황입니다. 5년마다 중기계획이 수립되며, 2006년에는 제 2 중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국립미술관 본부에 정보기획실이 설치되고 제가 그 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립미술관 정보기획실장, 그리고 1989년, 일본에서 탄생한 일본판 ARLIS라고도 할 수 있는 JADS=아트도큐멘테이션학회<sup>1)</sup> 부회장, 또한 2004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ALC=미술도서관연락회<sup>2)</sup>의 미술도서관 횡단검색 추진책임자 등의 입장에서 「<연계> 하는 미술정보: IFLA/ARLIS/JADS/ALC의 전개를 통하여(Bridging the distances between art information/resourc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Some cases on IFLA/ARLIS/JADS/AL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최근 20년간 일본의 미술정보에 대하여, 특히 <연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짧기도 하여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인 최선생님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 1.2 키워드

이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련되는 몇 개의 키워드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 IFLA<sup>3)</su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연맹

IFLA-SAL (Section of Art Libraries)<sup>4)</sup>, 1981- 국제도서관연맹 미술도서관 분과회  
Section 은 분과회라는 의미이며 1981 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 ARLIS

Art Libraries Society 미술도서관협회

ARLIS/UK & Eire<sup>5)</sup>, 1969- 영국미술도서관협회

ARLIS/NA (North America)<sup>6)</sup>, 1972- 북미미술도서관협회

ARLIS/ANZ (Australia/New Zealand)<sup>7)</sup>, 1975- 호주미술도서관협회

ARLIS 자체는 영국에서 처음 생긴 조직이었지만 이후 구미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동종 조직이 잇달아 생기고 있습니다.

■ JADS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1989- 아트도큐멘테이션학회

일본판 ARLIS 로서 발족하였으며, 내년 2009 년에 20 주년을 맞이합니다.

■ ALC

Art Libraries' Consortium, 2004- 미술도서관연락회

2004 년에 탄생한 미술관도서관의 OPAC 은 횡단검색시스템을 공유하고 미술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Consortium 입니다. 현재 8 개관 10 개 실의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1.3 일본 미술도서관의 1986 년

IFLA 의 SAL, 즉 Section of Art Libraries 는 1981 에 탄생했습니다만, 그 전년도인 1980 년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IFLA 가 개최되었던 마닐라대회에서 Section=분과회의 전신이었던 Art Libraries Round Table 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술도서관에 관한 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武蔵野(무사시노)미술대학의 미술자료도서관 사서였던 大久保逸雄(오오꾸보)씨가 「일본 미술사 도큐멘테이션의 제문제(Problems in art history documentation in Japan)」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다음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sup>8)</sup>. 특히 (2)(5)는 오늘날 한층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국립기관에 집중

(2) 상호협력의 부재와 필요성

there is no liaison organization of libraries in the field of art

(3) 도큐멘테이션에 관한 학예연구원과 사서의 협동작업 부재

(4) 미술사 연구자료의 체계화 부재와 필요성

(5) 국제화의 필요성

the necessary basis 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field of art scholarship

IFLA 마닐라대회 6년 후인 1986년, 동경에서 IFLA가 개최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986년 IFLA 동경대회에서 열린 SAL에서는 다음과 같이 ARLIS/NA, ARLIS/ANZ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발표자 이외에도, 예컨대 뉴욕근대미술관 도서관장이었던 Clive Philpot 씨와 같은 ARLIS/NA를 대표하는 미술전문사서가 많이 참가하여 주셨습니다.

ARLIS란 앞서 든 키워드 중 하나로 Art Libraries Society입니다. 1969년 영국에서 발족된 후 북미와 호주/뉴질랜드 외에도 유럽 각국(독일<sup>9)</sup>, 네덜란드<sup>10)</sup>, 프랑스<sup>11)</sup>, 북구 각국<sup>12)</sup>)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직 ARLIS 수준의 조직은 없었습니다만 마닐라에서는 大久保(오오꾸보)씨와 木村八重子(기무라)씨가 해외 ARLIS 회원과 나란히 일본의 포스터와 에도시대 繪草子(매장마다 그림이 들어 있는 소책자)의 도큐멘테이션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sup>13)</sup>.

IFLA Conference, Tokyo, 1986,

Section of Art Libraries, Name of speakers and titles of papers

ARLIS/NA:

■ Melva Dwyer from Montreal, Canada:

Solutions to processing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in a Canadian library

■ Nancy Allen from Boston, USA:

History of western sources on Japanese art: a bibliographic essay

ARLIS/ANZ:

■ Sue Boaden from Sydney, Australia:

Art information network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 Asian/Pacific ARLIS 이 제안됨

일본:

■ 大久保逸雄: History of posters in Japan and the present state of their documentation

■ 木村八重子: The change of illustrated story books in the Edo period(1600-1880)

이렇게 하여 일본의 미술도서관 사서는 IFLA, 특히 SAL과 ARLIS를 만났으며, 그것은 발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때 벌써 호주의 Sue Boaden 씨는 Asian/Pacific ARLIS를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 2. JADS 의 발족과 그 배경 - 우리는 왜 ARLIS 가 아니었는가?

### 2.1 Why not ARLIS/Japan?

1986 년의 IFLA 동경대회 후 2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우리는 일본판 ARLIS 라고도 할 수 있는 JADS: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아트도큐멘테이션학회를 창설 하였습니다. ARLIS 을 따르고 있으며, 미술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우리는 학회의 이름에서 결국 L (Library) 을 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L (Library)이라는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같이 미술 관련 자료나 정보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예컨대 학예연구원이나 미술사연구자들에게 「아, 저 모임은 사서들의 모임이야」라고 생각하게 하여 <연계> 가능성을 잃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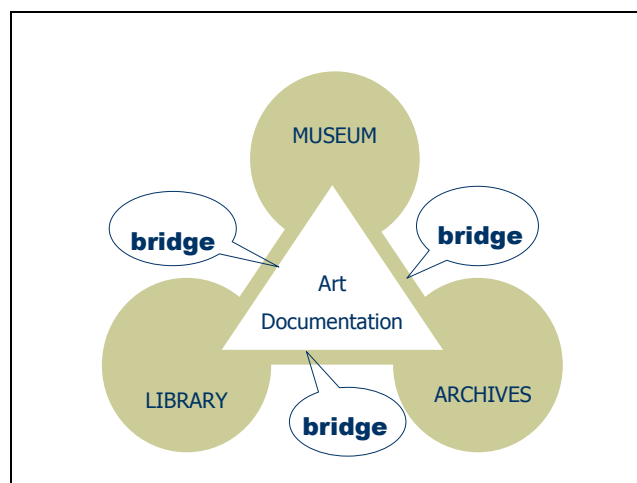
또한,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술 관련 자료나 정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미술도서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M (Museum) 에도, A (Archives)에도 미술정보는 두루 산재해 있습니다. 그 M (Museum) - L (Library) - A (Archives)의 삼각형 구조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아트도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생각을 저는 1989년 ARLIS/UK & Eire의 Journal인 *Art Libraries Journal*에 “The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and art librarianship in Japan today” 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sup>14)</sup>.

### 2.2 제 1 회 아트도큐멘테이션 연구포럼, 1994

지금 설명드린 내용, 특히 MLA <연계> 구도와 아트도큐멘테이션은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 MLA <연계> 와 아트도큐멘테이션



이 그림은 JADS가 창립 5주년에 열었던 제 1회 아트도큐멘테이션 연구포럼(First Forum on Art Documentation) 「미술정보와 도서관(Art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에서 심포지엄 테마인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를 잇는 것-아트도큐멘테이션으로부터의 모색과 전망(Networking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through Art Documentation: A View into the Future)」을 알리는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하였습니다.

별써 내년 2009에는 우리의 JADS는 창립 20주년을 맞습니다. 내년 12월, 다시 한 번, MLA의 <연계>를 주 테마로 제 4회 아트도큐멘테이션 포럼 「JADS 20th Anniversary 4th Forum of Art Documentation: Art Documentation in Japan 1989-2009: MLA Today, Tasks and Future」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3. ALC의 성립과 그 전개

#### 3.1 ALC의 성립

다음으로, 미술정보의 <연계>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L(Art Library)의 <연계>를 위한 장치인 ALC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C는 2004년에 동경권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관, 특히 근대미술 중심의 미술관이면서 공개 미술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 즉 동경국립근대미술관, 동경도현대미술관, 요코하마미술관의 공동체 Consortium로 형성되었습니다. 각 미술관 모두가 인터넷으로 미술도서관의 OPAC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 OPAC의 횡단 검색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ALC는 1999년 독일에서 VKK(Virtueller Katalog Kunstgeschichte)로 공개되었으며, 현재 artlibraries.net<sup>15)</sup>로 이름을 바꾼 Virtual Catalogue for Art History의 횡단검색과 거의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3.2 ALC의 확대

현재, ALC는 발족 당시 3개관에서 8개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표 1). 동경국립근대미술관에는 공예관과 필름센터에도 각각 전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는 8관 10실의 공동체이며 검색대상이 되는 장서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에 일본에서 다섯 번째의 국립미술관이 된 국립신미술관도 작년 2월부터 참가하고 있습니다.

표 1: ALC's expansion 2004-2007(1): 8 Museums / 10 Museum Libraries

- MOM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 동경국립근대미술관  
Art Museum Library / Craft Gallery Library / Film Center Library
- NACT: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 국립신미술관
- YMA: Yokohama Museum of Art / 요코하마(横浜)미술관
- NMWA: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 국립서양미술관
- MOT: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 동경도현대미술관
- TMMP: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 동경도사진미술관
- TNM: Tokyo National Museum / 동경국립미술관
- ETM: Edo Tokyo Museum / 동경도에도(江戸)동경박물관

ALC 8 관 10 실의 횡단검색 구성도는 그림 2 와 같습니다. NACT(국립신미술관)는 동경국립근대미술관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원 안에 그렸습니다.

그림 2 : ALC 참가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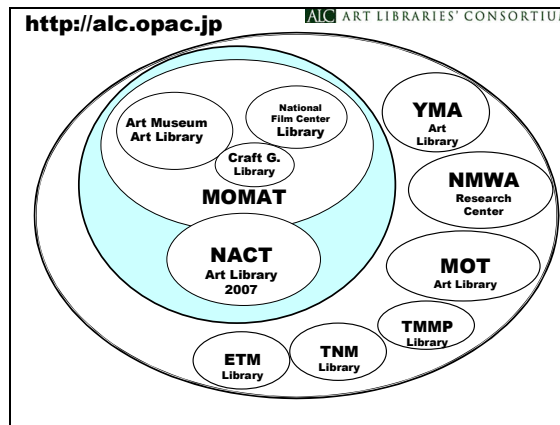


그림 3 은 ALC 의 검색화면입니다. 동경국립근대미술관에서 각 OPAC 을 차례로 검색하고 그 검색결과를 하나로 정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ALC 의 시스템상의 역할입니다. 상세데이터는 각 OPAC 의 화면에서 표시합니다.

이 시스템의 좋은 점은 횡단검색을 실현함에 있어서 기존 OPAC 자체를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ALC 참가 기관은 그 설치기반도 도서관시스템이나 OPAC 도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특성이 중요하였습니다. ALC 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에 손을 대는 노력이나 경비는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ALC 서버에서는 각 OPAC 을 튜닝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은 참가 시 초기 설정을 위한 약간의 조정으로 끝나며, 각 관의 OPAC 서버가 횡단검색시스템에게 데이터의 제공이나 갱신, 그리고 전술한 OPAC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LC 참가의 벽을 낮추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 3 : ALC 검색화면 http://alc.opac.jp/



표 2 는 ALC 발족 시, 즉 2004 년, 동경국립근대미술관과 동경도현대미술관, 요코하마 (橫 浜) 미술관의 장서통계입니다. 전시회 카탈로그의 수가 특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술도서관도 마찬가지로라고 생각합니다만, ALC 참가 기관에게는 전시회 카탈로그가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表2: ALC's holdings 2004 in Start

	MOMAT	MOT	YMA	Total
Books in Japan	40,389	30,811	21,872	93,072
Books Overseas	11,349	4,528	11,120	26,997
<b>Exh. Cat. in Japan</b>	<b>40,877</b>	<b>40,171</b>	<b>30,710</b>	<b>111,758</b>
Exh. Cat. Overseas	23,096	5,303	17,287	45,686
Periodicals in Japan	2,884	3,430	727	7,041 (titl.)
Periodicals Overseas	761	335	513	1,609 (titl.)

表3: ALC's expansion (2) 2007.7  
Books  
260,000  
Exhibition Catalogues  
20,000  
Periodicals (titles)

検索対象書種	2007年07月16日現在							
	東京国立近代美術館	東京都現代美術館	横浜美術館	国立西洋美術館	東京都写真美術館	東京国立博物館	江戸東京博物館	経団
利図書	62,036	41,000	24,261	5,625	19,402**	111,861	70,810***	394,996 (冊)
洋誌書	15,925	9,000	11,261	21,088	10,484**	2,294	740****	70,992 (冊)
国内展覧会 カタログ	80,147	46,000	34,401	2,734	-	21,896	11,743	196,022 (冊)
海外展覧会 カタログ	29,260	7,000	16,490	6,530	-	140	-	60,220 (冊)
特種誌	3,467	3,430*	1,930	815	0	3,737	3,921****	17,200 (冊)
洋誌誌	963	336	660	720	0	37	-	2,696 (冊)

표 3 은 2007 년 7 월 현재 ALC 참가 기관의 소장자료통계(총계)입니다. 40 만의 도서, 26 만의 전시회 카탈로그, 그리고 2 만종의 연속간행물이 ALC 횡단검색의 검색 대상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3.3 ALC 의 현황과 과제

#### 3.3.1 ALC 의 현황 : 효과

Today's ALC: effects

이어서 ALC 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효과입니다. ALC 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미술관도서관은 공간적인 제약이 크고, 장서의 태반은 공개 열람실이 아니라 폐가서고, 그것도 전통 밀집서가에 공간효율을 높여서 배가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OPAC 에서 검색한 후 청구하면 사서가 자료를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OPAC 에서 어떻게 검색하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횡단검색을 이용하여, 어떤 미술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ALC 참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면 이용자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도서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경도현대미술관의 예입니다만, 폐가서고자료의 이용률에 대해 년도별, OPAC 의 공개 전후, ALC 의 공개 전후로 나눠 「이용자 1 인당 폐가자료 청구건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0.4~0.5 책/인이었던 폐가자료의 청구건수가 ALC 공개 후에는 1.1로 3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ALC 의 횡단검색이 서지와 소장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다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Today' s ALC: effects

Facilitation of the use of books in the closed stacks: One case of MOT Art Library

1994~2000	0.551book/person
2001	0.713 book/person
2002	0.632 book/person
2003	
before OPAC open: 04/01-09/26	0.394 book/person
after OPAC open: 09/27-02/29	0.809 book/person
after ALC open: 03/01-04/30	1.104 book/person(+36%)

### 3.3.2 ALC 의 현황 : 상호협력

Today' s ALC: Cooperation

다음은 ALC 참가 기관의 상호협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ALC 도서관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자료가 전시회 카탈로그라는 것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ALC 참가 기관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전시회 카탈로그나 연보, 기요(紀要) 등과 같은 미술관 간행물을 서로 기증 교환하는 협력체제가 되어있었습니다만, ALC 발족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최 전시회 카탈로그가 간행되면 즉시 서로 기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ALC 관의 카탈로그는 전시회 개최와 거의 동시에 상호 도서관에 비치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의 내용을 보다 충실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높은 PR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동경국립근대미술관의 미술도서관에서 지금 요코하마(横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카탈로그를 봄으로써 틀림없이 그 전시회를 보러 요코하마(横浜)미술관에 가려는 관객이 생길 것입니다.

ALC의 횡단검색은 가끔 신문 등의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JADS가 2007년부터 시작한 학회의 상을 받기도 하는 등, 이 활동이 미술관 속에 있는 도서관의 존재감=Presence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에서의 도서관은 그 존재를 세상에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도서관이 구태의연한 채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술관의 미술도서관도 또한 같습니다. ALC가 가져온 미술도서관 Presence의 향상은 즐거움이며 동시에 현장의 담당자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 3.3. ALC의 현황 : 과제

Today's ALC: critical points

이제는 현재 ALC의 한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모체가 모두 다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유할 수 없는 ALC에서는 아직 ILL=상호대차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술자료는 귀중할 뿐만 아니라 취약하다는 특성도 원인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Consortium의 공동분담에 의한 장서구축의 방침이나 그 장서구성을 표현하기 위한 Conspectus를 ALC가 형성하기까지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자료수집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각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중복하여 구입하는 경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서구축의 공동분담과 관련된 계획수립은 지금부터의 ALC로서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과제는 직원입니다. 도서관에서 현장을 떠받치는 직원의 거의 9할은 임기가 정해진 비상근 직원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 도서관의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의 직원이 그 도서관의 의사결정을 표명하고 관철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계속성, 기량의 유지향상 면에서도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직원에게 관외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 예컨대 ALC의 발전, JADS의 학회업무 등에 근무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사서는 관외의 학회, 협회, Consortium 사업에 종사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구축해온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자체가 쇠퇴할지 모른다는 위구심을 우리들 이상의 세대는 품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 또한 우리들 윗 세대의 책임이 아니었는가라고 종종 자문하게 됩니다.

#### 4. ARLIS/Asia 를 향하여

##### 4.1 아시아에서의 IFLA 개최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제를 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개최된 IFLA 를 되돌아 보겠습니다. 동경에서 개최된 후, 북경, 뉴델리, 방콕, 그리고 서울로 이어졌습니다(표 4). 동경에서의 IFLA가 일본에 JADS를 탄생시켰던 것과 같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ARLIS 와 유사한 조직의 탄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동경 후에는 1996 년의 북경, 1998 년의 암스테르담의 IFLA 에 참가하였습니다. 북경에서는, 후에 고오베(神戸)에서 다시 만난 고궁박물관 도서관의 주(朱賽虹) 선생님을 JADS 의 멤버와 함께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그림 4).

표 4: IFLA and JADS's Forum on Art Documentation

1980	46th	IFLA	Manila
1988	52nd	IFLA	Tokyo
1992	58th	IFLA	New Delhi
1996	62nd	IFLA	Beijing
1999	65th	IFLA	Bangkok
2004	3rd Forum on Art Documentation in Kobe, Japan		
2006	72nd	IFLA	Seoul
2007	JADS members visited Seoul		

그림 4 고궁박물관 도서관 방문, 1996



그림 5 JADS members visited Seoul, 2007  
(한국국립현대미술관 도서실에서)



#### 4.2 JADS 서울 방문단, 2007

2004년, JADS는 15주년을 계기로 아시아를 테마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최선생님과 일본 긴끼(近畿)대학의 JADS의 주요 멤버이며 2004년의 포럼을 조직한 다꾸보(田窪)교수의 선도로 JADS 회원 약 20명이 서울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그림 5).

#### 4.3 제 3회 아트도큐멘테이션 포럼 인 고오베(神戸), 2004<sup>16)</sup>

3rd Forum on Art Documentation in Kobe, Japan, 15th Anniversary of JAD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oward the Art and Cultural Properties Information Network in Far East Asia,  
2004/8/6-7

중국:

朱賽虹(북경고궁박물관 도서관 부관장)

王 春(중국미술관정보센터)

한국:

金達鎭(김달진미술연구소장)

孔逢錫(한국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 정보담당관:당시)

일본:

田良島哲(동경국립박물관)

水谷長志(동경국립근대미술관)

「ARLIS/Asia의 가능성 - Future dreams for ARLIS/Asia」

그림 6 : 패널 디스커션



왼쪽부터 波多野(사회)· 崔(통역 : 한국)  
 金(한국)· 王(통역 : 중국)· 朱(중국)· 水谷

그림 7 : 마지막 슬라이드 [水谷프레젠테이션]



2004 년 이 포럼에서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이 슬라이드로 막을 내렸습니다(그림 7).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2007 년에 개관하는 국립신미술관의 미술도서관 설립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4 년 가을부터 거의 3 년간 이 프로젝트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덧붙인다면, JADS 에서 서울 IFLA 참가자는 매우 적어, 2004 년의 포럼에서 저의 프레젠테이션 제목 「ARLIS/Asia 의 가능성 - Future dreams for ARLIS/Asia」에 대해서도 성과의 싹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JADS 는 최선생님에게 부탁하여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의 국립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여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예술정보관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번 더 ARLIS/Asia 를 향하여, 적어도 지금 2008 년 11 월 14 일 여기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에 모인 우리들에 의한 인적 네트워크가 탄생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1986 년 이후 일단의 제 경험을 아시아 Colleague 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운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Try it again!  
 ARLIS/Asia here from Today

참고문헌:

- 1) JADS: <http://www.jads.org/>
- 2) ALC: <http://alc.opac.jp/> ALC 에 대해서는 pdf 파일로 입수 가능한 다음 문헌도 참조. Mizutani. Brief history and cooperative scheme of art museum libraries in Japan today: Centering on 'exhibition catalogs' - art librarians' most valuable materials/ IFLA Art Libraries Section Newsletter, no.59, 2006. p. 3-7. <http://www.ifla.org/VII/s30/news/art-newsletter59.pdf>
- 3) IFLA: <http://www.ifla.org/>
- 4) IFLA-SAL: <http://www.ifla.org/VII/s30/index.htm>
- 5) ARLIS/UK & Eire: <http://www.arlis.org.uk/>
- 6) ARLIS/NA: <http://www.arlisna.org/>
- 7) ARLIS/ANZ: <http://www.arlis.org.au/>
- 8) 大久保逸雄. Problems in art history documentation in Japan. *Art Libraries Journal*, vol.5, no.4, winter 1980, pp. 25-33.
- 9) Arbeitsgemeinschaft der Kunst- und Museumsbibliotheken(AKMB): <http://www.akmb.de/web/html/wir/wir.html>
- 10) Overleg Kunsthistorische Bibliotheken Nederland - Art Libraries Society / The Netherlands (OBKN - ARLIS/NL): <http://www.okbn.nl/>
- 11) Association des Bibliothecaires Francais (ABF): <http://www.abf.asso.fr/>
- 12) Art Libraries Society / Norden (ARLIS Norden): <http://www.arlisnorden.org/>
- 13) Sue Boaden, Nancy S. Allen, Itsuo Okubo 의 발표논문은 후일, *Art Libraries Journal*, vol. 11, no.4, 1986. 에 게재되었다.
- 14) *Art Libraries Journal*, vol. 14, no.3, 1989, pp. 5-6.
- 15) artlibraries.net - Virtual Catalogue for Art History [http://artlibraries.net/index\\_en.php](http://artlibraries.net/index_en.php)
- 16) 『国際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における美術・文化財情報のネットワーク化を考える 報告書』 아트·도큐멘테이션研究会, 2005, 143p.



〈連携〉する美術情報:IFLA/ARLIS/JADS/ALC の展開を通して  
Bridging the distances between art information/resourc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Some cases on IFLA/ARLIS/JADS/ALC

水谷 長志

Takeshi Mizutani

Chief, Planning Office for Art Informatics,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 National Museum of Art

Librarian, Art Library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takeshim@momat.go.jp

Resume:

美術の資料と情報の収集, 組織化, 提供を考えると, いかに優れた図書館であれ一つの美術図書館がすべてを網羅することはもはやできません。今日, あらゆる主題, あらゆる館種において図書館は相互協力の枠組みを国内, 国外において, 共に築い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かつ美術の場合, Library(L)のみならず, Museum(M), Archives(A)とも〈連携〉しつつ, 美術の資料と情報について考察する必要に迫られています。日本におけるおよそ 20 年間の試みを, 4 つのキーワード, すなわち IFLA/ARLIS/JADS/ALC を核として紹介することを本稿の目的としています。

1. 日本のアートライブラリアンが IFLA と  
ARLIS に遭遇した 1986 年

1.1 はじめに

本日は「2008 視覚芸術政策 フォーラム <Art Archives>II」シンポジウムにお招きいただき光栄であるとともに, 招聘に当たって様々にお骨折りいただいた関係の皆さまに深くお礼申し上げます。

私は東京国立近代美術館において長く籍を置き, もう 20 年を越えてしまいましたが, その間, アートライブラリと各種情報システムの開発に従事して参りました。2001 年, 日本の国立美術館は独立行政法人化し, 国の機関であることから離れております。国立博物館および国立大学においても同様の事態となっております。5 年ごとに中期計画が策定され, 2006 年, 第二中期のスタート共に, 国立美術館の本部に情報企画室が設置され, その室長を併任し

ております。

その立場からと 1989 年, 日本において誕生した日本版 ARLIS ともいべき JADS = 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学会<sup>1)</sup>の副会長の立場と, そして 2004 年から稼働している ALC = 美術図書館連絡会<sup>2)</sup>による美術図書館横断検索の推進役としての立場から, 「〈連携〉する美術情報:IFLA/ARLIS/JADS/ALC の展開を通して (Bridging the distances between art information/resources, professionals and organizations/institutions: Some cases on IFLA/ARLIS/JADS/ALC)」と題するお話し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複数の側面から, ここ 20 年の日本における美術情報の, 特に〈連携〉についてをテーマといたしますが, 短い時間でもあり, かなり駆け足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になることをお許し下さい。通訳の崔先生にもご負担をおかけします

が、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 1.2 キーワード

以下、お話しを始める前に関連するいくつかの Kew Word を整理してご紹介します。

### ■ IFLA<sup>3)</su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国際図書館連盟

IFLA-SAL (Section of Art Libraries)<sup>4)</sup>, 1981-

Section とは分科会の意味で、1981 年以来活動しています。

国際図書館連盟美術図書館分科会

### ■ ARLIS

Art Libraries Society

美術図書館協会

ARLIS/UK & Eire<sup>5)</sup>, 1969-

英国美術図書館協会

ARLIS/NA (North America)<sup>6)</sup>, 1972-

北米美術図書館協会

ARLIS/ANZ (Australia/New Zealand)<sup>7)</sup>, 1975-

豪州美術図書館協会

ARLIS 自体は英国で初めて誕生した組織ですがその後、欧米を中心に各国において同種の組織が次々と誕生しています。

### ■ JADS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1989-

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学会

日本版 ARLIS として発足、来年 2009 年には 20 周年を迎えます。

### ■ ALC

Art Libraries' Consortium, 2004-

美術図書館連絡会

2004 年に誕生した美術館図書室の OPAC を横断検索するシステムを共有する、美術図書館の相互協力のための Consortium です。現在 8 館 10 室のライブラリが参加しています。

## 1.2 日本の美術図書館にとっての 1986 年

IFLA の SAL すなわち Section of Art Libraries は、1981 年に誕生しますが、その前年の 1980 年、Section = 分科会 になる前身であった Art Libraries Round Table が、アジアで最初の IFLA が開催されたマニラ大会において開かれました。そこで、やはりアジアから初めての美術図書館に関する論文が提出されました。

当時、武蔵野美術大学の美術資料図書館員であった大久保逸雄さんが「日本における美術史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の諸問題 (Problems in art history documentation in Japan)」と題して、次ぎの 5 項目を指摘しています<sup>8)</sup>。特に(2)(5)は今日なお重要な課題としてあります。

(1) 国立機関に集中

(2) 相互協力網の不在と必要

there is no liaison organization of libraries in the field of art

(3) 学芸員と図書館員の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に関する協同作業の不在

(4) 美術史研究資料の体系化の不在と必要

(5) 国際化の必要

the necessary basis 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field of art scholarship

IFLA マニラ大会から 6 年後の 1986 年、IFLA が東京で開かれました。一昨年の 2006 年はソウルで開かれています。

1986 年の IFLA 東京大会において開かれた SAL においては、下記のように ARLIS/NA、ARLIS/ANZ からのペーパーが発表されました。ペーパー発表者以外にも、例えば、ニューヨーク近代美術館の図書館長だった Clive Philpot さんのような、ARLIS/NA を代表するアートライブラリアンが数多く参加して下さいました。

ARLIS というのは、先に挙げたキーワードの一つで Art Libraries Society です。1969 年に英国で発足後、北米や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

ーランドほか、ヨーロッパ各国(ドイツ<sup>9)</sup>, オランダ<sup>10)</sup>, フランス<sup>11)</sup>, 北欧各国<sup>12)</sup>)において誕生しています。当時、日本には ARLIS に相当する組織は誕生していませんでしたが、マニラで発表された大久保さんと木村八重子さんが、海外 ARLIS のメンバーと並んで日本のポスターと江戸時代の絵草子に関する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について報告しています<sup>13)</sup>。

IFLA Conference, Tokyo, 1986, Section of Art Libraries, Name of speakers and titles of papers

ARLIS/NA:

- Melva Dwyer from Montreal, Canada:  
Solutions to processing East Asian language materials in a Canadian library
- Nancy Allen from Boston, USA:  
History of western sources on Japanese art: a bibliographic essay

ARLIS/ANZ:

- Sue Boaden from Sydney, Australia:  
Art information network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An Asian/Pacific ARLIS was proposed

日本:

- 大久保逸雄: History of posters in Japan and the present state of their documentation
- 木村八重子: The change of illustrated story books in the Edo period(1600-1880)

ここにおいて日本の美術図書館員は IFLA, 特に SAL と ARLIS と出会い、そしてそれを発見したと言って良いでしょう。この時、オーストラリアの Sue Boaden さんがすでに、Asian/Pacific ARLIS を提起されていたこと的事实は深く重い意味を持つと思われます。

## 2. JADS の発足とその背景－私たちはなぜ ARLIS でなかったのか

### 2.1 Why not ARLIS/Japan?

1986年のIFLA東京大会から2年の準備期

間を置いて、私たちは日本版 ARLIS ともいべき JADS: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 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学会を創設しました。ARLIS に習いつつ、アートライブラリを中核としながら、けれども私たちは、私たちの会の名称から L (Library) を除いたのでした。

日本において L (Library) の文字を使うことによって、「ああ、あの会はライブラリアンたちの集まりなんだ」と同じく美術の資料や情報と深く関与している、例えば学芸員や美術史研究者との〈連携〉の可能性を失うことを避けたかったから、ということもでき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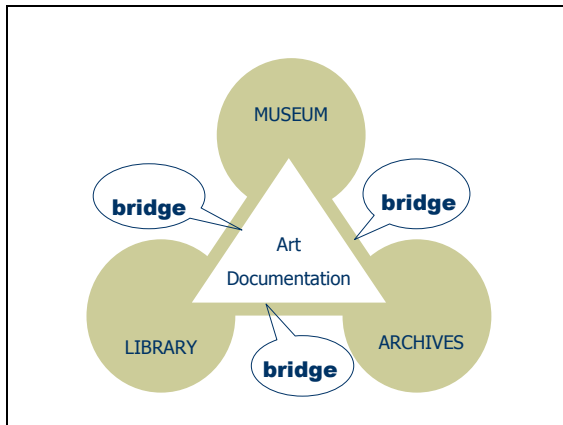
さらに、一層重要だと考えたのは、美術の資料や情報は、いたって当たり前のことですが、アートライブラリにあるだけ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M (Museum) にも、A (Archives)にも美術情報は偏在しています。その M (Museum) - L (Library) - A (Archives) のトライアングルの構造を内包する概念として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を採用したのです。

その当時の思いを私は 1989 年の ARLIS/UK & Eire の Journal である *Art Libraries Journal* に ”The Japan Art Documentation Society and art librarianship in Japan today”と題して寄稿しております<sup>14)</sup>。

### 2.2 第1回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研究フォーラム, 1994

いま述べましたこと、特に MLA〈連携〉の構図と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とは、図1のように描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図 1: MLA〈連携〉と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



この図は、JADS が創立 5 周年において開いた第 1 回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研究フォーラム (First Forum on Art Documentation)「美術情報と図書室 (Art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s)」において、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ミュージアム・ライブラリ・アーカイヴをつなぐものー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からの模索と展望 (Networking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through Art Documentation: A View into the Future)」を世に問うたときのシンボルの図でもありました。

早いもので来年、2009 年、私たちの JADS は創立 20 周年を迎えます。来年 12 月、再度、MLA の〈連携〉についてを主テーマとする第 4 回の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フォーラムを「JADS 20th Anniversary 4th Forum of Art Documentation: Art Documentation in Japan 1989-2009: MLA Today, Tasks and Future」と題して開催すべく、現在、準備しています。

### 3. ALC の成立とその展開

#### 3.1 ALC の成立

次に、美術情報の〈連携〉に関わって、近年顕著な成果を見せている L (Art Library) における〈連携〉のための仕組みである ALC 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ALC は、2004 年に東京国立近代美術館、東京都現代美術館、横浜美術館という東京

圏の日本を代表する美術館、特に近現代美術中心の美術館であり、かつ公開のアートライブラリを有する美術館の共同体 Consortium として形成されました。いずれの美術館もインターネットに美術図書室の OPAC を公開しており、その OPAC を横断的に検索するシステムを共同で構築・運営し始めたのです。

この ALC は、1999 年にドイツにおいて VKK (Virtueller Katalog Kunstgeschichte) として公開され、現在は artlibraries.net<sup>15)</sup> と名称を改めた Virtual Catalogue for Art History の横断検索とほぼ同様の機能を果たしています。

#### 3.2 ALC の拡大

現在、ALC は発足当時の 3 館から 8 館に拡大しています (表 1)。東京国立近代美術館には工芸館、フィルムセンターにもそれぞれ専門の図書室がありますので、全体では、8 館 10 室の共同体となり、検索対象となる蔵書の数も急激に増加しています。また、昨年 2 月、2007 年に日本で 5 番目の国立美術館となった国立新美術館も参加しています。

表 1: ALC's expansion 2004-2007(1):

8 Museums / 10 Museum Libraries

- MOM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 東京国立近代美術館  
Art Museum Library / Craft Gallery Library / Film Center Library
- NACT: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 国立新美術館
- YMA: Yokohama Museum of Art / 横浜美術館
- NMWA: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 国立西洋美術館
- MOT: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 東京都現代美術館
- TMMP: Tokyo Metropolitan Museum of Photography / 東京都写真美術館
- TNM: Tokyo National Museum / 東京国立

博物館

- ETM: Edo Tokyo Museum / 東京都江戸東京博物館

8 館 10 室の ALC の横断検索の構図は図 2 のようになります。NACT=国立新美術館は、東京国立近代美術館と同じシステムを使っていますのでこのような円を描きます。

図 2: ALC 参加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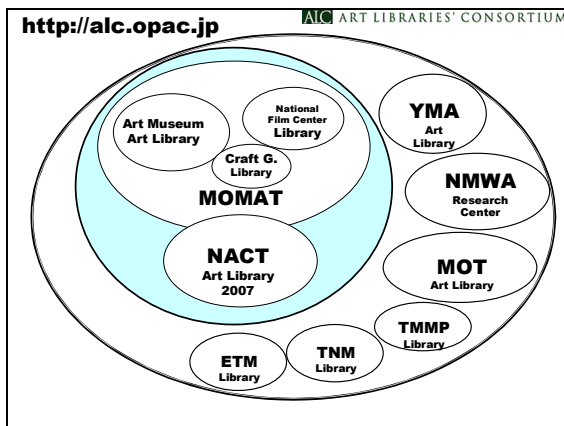


図 3 が ALC の検索画面です。個々の OPAC を東京国立近代美術館から順次検索し、その検索結果を一覧としてまとめて表示するところまでが、ALC のシステム上の役割です。詳細データは個々の OPAC の画面へ遷移して表示します。

このシステムの良いところは、横断検索を実現するに当たって、既存の OPAC 自体への改変を一切行う必要がないことです。ALC 参加館は、その設置基盤も図書館システムや OPAC も、いずれも異なる仕様のものですから、この特性は重要でした。ALC に参加するために既存システムに手を入れるという労力や経費は、一切不要だったからです。

ALC のサーバ側で最小限、個々の OPAC へのチューニングをすることは必要ですが、それは参加時に初期設定のための若干の調整で済みますし、各館 OPAC のサーバから横断検索システムへデータの提供や更新、先に述べ

ました OPAC 自体の改変の労がないことが、ALC への参加の壁を低くしたのだと感じています。

図 3: ALC 検索画面 <http://alc.opac.jp/>



表 2 は、ALC 発足時、すなわち 2004 年、東京国立近代美術館と東京都現代美術館、横浜美術館の蔵書の統計です。展覧会カタログの数が群を抜いて多いことがお分かりになるかと思います。ALC 参加館においては、韓国の美術館のアートライブラリも同様と思いますが、展覧会カタログが最も重要かつ中核的な資料になっています。

表2: ALC's holdings 2004 in Start

	MOMAT	MOT	YMA	Total
Books in Japan	40,389	30,811	21,872	93,072
Books Overseas	11,349	4,528	11,120	26,997
<b>Exh. Cat. in Japan</b>	<b>40,877</b>	<b>40,171</b>	<b>30,710</b>	<b>111,758</b>
Exh. Cat. Overseas	23,096	5,303	17,287	45,686
Periodicals in Japan	2,884	3,430	727	7,041 (titl.)
Periodicals Overseas	761	335	513	1,609 (titl.)

表3: ALC's expansion (2) 2007.7  
400,000  
260,000  
20,000  
Books  
Exhibition Catalogues  
Periodicals (titles)

2007年07月31日現在

検索対象資料	東京国立近代美術館 国立新美術館	東京都現代美術館	横浜美術館	国立西洋美術館	東京都庁西美術館	東京国立博物館	江戸東京博物館	合計
和図書	62,036	41,900	24,261	5,625	19,402**	111,861	70,810***	334,995 (冊)
洋図書	15,925	9,000	11,261	21,889	10,484**	2,294	742****	70,900 (冊)
国内展覧会 カタログ	88,147	46,000	94,401	2,784	-	21,896	11,743	196,501 (冊)
海外展覧会 カタログ	29,360	7,000	18,499	6,500	-	146	-	63,505 (冊)
和雑誌	3,667	3,430*	1,500	815	0	3,737	3,921****	17,200 (誌)
洋雑誌	963	306	660	700	0	27	-	2,656 (誌)




表3は2007年7月時点でのALC参加館の所蔵資料統計(合算)です。40万の図書、26万の展覧会カタログ、2万誌の逐次刊行物がALCの横断検索の検索対象資料となっているわけです。

### 3.3 ALCの現状と課題

#### 3.3.1 ALCの現状:効果

##### Today's ALC: effects

次にALCの現状についてお話ししましょう。まずその効果からです。ALC参加の美術館図書室の多くは、空間的な制約が大きく、蔵書の大半はオープンな閲覧室ではなく、閉架書庫、それも電動の周密書架にスペース効率を高めて配架されています。利用者はOPACで検索した上で、請求してライブラリアンが資料を出納する方式になっています。

ですから、ライブラリの資料の利用を高めるためには、いかに利用者がOPACで検索するかがキーになります。かつ横断検索によって、あるアートライブラリに所蔵が無くとも他のALC参加のライブラリにあれば、それを利用するために利用者は別のライブラリに出向くことができます。

東京都現代美術館の例ですが、閉架書庫の資料の利用度を年度ごと、およびOPACの公開前後、ALCの公開前後と時系列に「利用者一人当たりの閉架資料請求件数」を調べました。その結果、0.4~0.5冊/人だった閉架資料の請求件数が、ALC公開後、1.1へと+36%の増加を見ました。

これはいかにALCの横断検索が書誌と所蔵

の情報を、それを求める人に、より確実に届ける効果があったかの証になるものだと確信しています。

#### Today's ALC: effects

##### Facilitation of the use of books in the closed stacks: One case of MOT Art Library

1994~2000 0.551book/person

2001 0.713 book/person

2002 0.632 book/person

2003

before OPAC open: 04/01-09/26

0.394 book/person

after OPAC open: 09/27-02/29

0.809 book/person

after ALC open: 03/01-04/30

1.104 book/person (+36%)

#### 3.3.2 ALCの現状:相互協力

##### Today's ALC: Cooperation

次にALC参加館の相互協力についてです。ALCのライブラリにとって最も重要かつ中核的な資料が展覧会カタログであることは既に指摘した通りです。

ALC参加館では旧来より展覧会カタログや年報、紀要などの美術館刊行物を相互に寄贈交換する協力の体制ができていましたが、ALC発足に伴い、さらに一歩進めて、展覧会が開かれ、カタログが刊行されたならば、時間を置かずに即時に贈りあう約束をしました。

これによりALC館のカタログは、ほぼ展覧会の開催と同時に相互のライブラリに置かれ、それはとりもなおさず、今開かれている展覧会の内容をより充実した形で利用者へ知らせるといって、大きなPR効果を生んでいるのです。東京国立近代美術館のアートライブラリで、横浜美術館で今開かれている展覧会のカタログを見たことによって、横浜美術館へその展覧会を見に行こうという観客がきつと生まれているに違いないのです。

ALC の横断検索はしばしば新聞等のマスコミに取り上げられました。また JADS が 2007 年から始めた学会の賞に選ばれるなど、この活動が美術館の中のライブラリの存在感 = Presence の向上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

今日、日本においては、ライブラリはその存在を常に世の中へアピールし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ライブラリは旧態依然のままでは生き残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美術館の中のアートライブラリもまた同様なのです。ALC がもたらしたアートライブラリの Presence の向上は、喜びであるとともに現場のスタッフへ大きな励みになっているのです。

### 3.3.3 ALC の現状 : 課題

#### Today's ALC: critical points

そして現在の ALC の限界についてお話し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いずれも設置母体が異なり会計システムを共有できない ALC において、ILL = 相互貸借は未だ実現できていません。美術資料という貴重かつ脆弱な資料であるという特性も原因ではあるのですが。

また Consortium における、共同分担による蔵書構築の方針であり、その蔵書構成を表現するための Conspectus を ALC において形成するにはほど遠い状況にあります。制限のある資料収集費でありながら、やはり個々のライブラリにおいては、利用者の必要とする資料が重複して購入されている傾向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蔵書構築の共同分担に関わるプランの策定は、ALC にとってこれからの大きな課題です。

そして最大の課題はスタッフです。ライブラリにおいて現場を支えるスタッフのほぼ 9 割近くは、任期の限られた非常勤職員によって占められているのが現状です。現在の日本の図書館の憂うべき傾向がここに顕著に表れています。すなわち、現場のスタッフによってそのライ

ブラリの意志決定を表明し貫くことが困難であり、事業の継続性、スキルの維持向上においても深刻な影を投げかけています。加えて、これらスタッフには、館外ネットワークのための事業、例えば ALC の発展、JADS の会務といったことに、就労時間を割くことが極めて難しい状況にあるのです。

その結果、なかなか若手のライブラリアンが館外における学会、協会、Consortium 的な事業に従事する機会を持ち得ず、これまで営々と築いてきた図書館相互協力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自体が衰退する予感を私たち以上の世代は、大きな危惧として抱いています。同時に、いまこの事態を招いたのもまた、私たち世代以上の責任ではなかったかと自問することが多いのです。

## 4. ARLIS/Asia へ向けて

### 4.1 アジアにおける IFLA の開催

さて、このような課題を持ちながら、最後に、これまでアジアで開かれた IFLA をふり返ってみましょう。東京での開催後、北京、ニューデリー、バンコクそしてソウルと続きました(表 4)。東京での IFLA が日本に JADS を誕生させたようには、アジアの国々において ARLIS 類縁組織の誕生を招かなかったのは残念です。私自身も、東京の後には、1996 年の北京、1998 年のアムステルダムの IFLA に参加できただけでした。北京では、後に神戸で再会する故宮博物院図書館の朱さんを JADS のメンバーとともに訪問できたことが幸いでした(図 4)。

表 4: IFLA and JADS's Forum on Art Documentation

1980	46th	IFLA	Manila
1988	52nd	IFLA	Tokyo
1992	58th	IFLA	New Delhi
1996	62nd	IFLA	Beijing
1999	65th	IFLA	Bangkok
2004	3rd Forum on Art Documentation in Kobe, Japan		
2006	72nd	IFLA	Seoul
2007	JADS members visited Seoul		

図 4 故宮博物院図書館訪問, 1996



#### 4.2 JADS ソウル訪問団, 2007

そして2004年, JADSは15周年を機にアジアをテーマにフォーラムを開催いたしました。また, 昨年は崔先生と日本の近畿大学のJADSの主要なメンバーであり, 2004年のフォーラムを組織した田窪教授の先導によりJADSのメンバー約20名がソウル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図5)。

図 5 JADS members visited Seoul, 2007

韓国国立現代美術館図書室にて



#### 4.3 第3回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フォーラム・イン・神戸, 2004<sup>16)</sup>

3rd Forum on Art Documentation in Kobe, Japan, 15th Anniversary of JADS

The International Symposium:

Toward the Art and Cultural Properties Information Network in Far East Asia, 2004/8/6-7

中国:

朱賽虹(北京故宮博物院図書館副館長)

王 春(中国美術館情報センター)

韓国:

金達鎮(金達鎮 美術研究所長)

孔逢錫(韓国文化観光部企画管理室情報課担当官)

日本:

田良島哲(東京国立博物館)

水谷長志(東京国立近代美術館)

ARLIS/Asiaの可能性—Future dreams for

ARLIS/Asia

図 6: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左から波多野(司会)・崔(通訳:韓国)

金(韓国)・王(通訳:中国)・朱(中国)・水谷



図 7: Last Slide[水谷プレゼンテーション]

72<sup>nd</sup> IFLA Seoul, 2006

再び、お会いしましょう

再見!

또 만나요!

33

2004年のこのフォーラムにおいて, 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このスライドで幕を下ろしまし

た(図 7)。ただ残念なことに、私は 2007 年に開館する国立新美術館のアートライブラリの立ち上げという大きなプロジェクトに巻き込まれ、2004 年の秋からおよそ 3 年間、このプロジェクトに集中するほかは何も手が着きませんでした。

加えて、JADS からソウル IFLA への参加者はごく少なく、2004 年のフォーラムにおける私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題目である「ARLIS/Asia の可能性－Future dreams for ARLIS/Asia」に対し、私自身、成果の芽を育む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けれども昨年、JADS の有志は崔先生を頼り、短い間でしたが、ソウルの国立博物館、国立現代美術館、そしてこの Arko 芸術情報館を訪問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今日、ここに

至っています。

いま一度、ARLIS/Asia に向けて、少なくとも、いまこ 2008 年 11 月 14 日の Arko に集う私たちによる人的ネットワークが誕生することを強く願っております。

以上、ご静聴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感謝するとともに、1986 年以来の私の経験の一端をアジアの Colleague とともに共有できた幸運に改めてお礼申し上げます。

**Try it again!**  
**ARLIS/Asia here from Today**

---

#### References:

- 1) JADS: <http://www.jads.org/>
- 2) ALC: <http://alc.opac.jp/> ALC については、pdf ファイルで入手可能な次の文献も参照されたい。  
Mizutani. Brief history and cooperative scheme of art museum libraries in Japan today: Centering on 'exhibition catalogs' - art librarians' most valuable materials/ IFLA Art Libraries Section Newsletter, no.59, 2006. p. 3-7. <http://www.ifla.org/VII/s30/news/art-newsletter59.pdf>
- 3) IFLA: <http://www.ifla.org/>
- 4) IFLA-SAL: <http://www.ifla.org/VII/s30/index.htm>
- 5) ARLIS/UK & Eire: <http://www.arlis.org.uk/>
- 6) ARLIS/NA: <http://www.arlisna.org/>
- 7) ARLIS/ANZ: <http://www.arlis.org.au/>
- 8) 大久保逸雄. Problems in art history documentation in Japan. *Art Libraries Journal*, vol.5, no.4, winter 1980, pp. 25-33.
- 9) Arbeitsgemeinschaft der Kunst- und Museumsbibliotheken(AKMB):  
<http://www.akmb.de/web/html/wir/wir.html>
- 10) Overleg Kunsthistorische Bibliotheken Nederland - Art Libraries Society / The Netherlands (OBKN - ARLIS/NL): <http://www.okbn.nl/>
- 11) Association des Bibliothecaires Francais (ABF): <http://www.abf.asso.fr/>
- 12) Art Libraries Society / Norden (ARLIS Norden): <http://www.arlisnorden.org/>
- 13) Sue Boaden, Nancy S. Allen, Itsuo Okubo の発表ペーパーは、後日、*Art Libraries Journal*, vol. 11, no.4, 1986. に掲載された
- 14) *Art Libraries Journal*, vol. 14, no.3, 1989, pp. 5-6.
- 15) artlibraries.net - Virtual Catalogue for Art History [http://artlibraries.net/index\\_en.php](http://artlibraries.net/index_en.php)
- 16) 『国際シンポジウム 東アジアにおける美術・文化財情報のネットワーク化を考える 報告書』アート・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研究会, 2005, 143p.



#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한 역사 분야의 협력

Collabo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History Organizations

윤 소 영

(So Young Yoon)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 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역사정보화

2000년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화사업을 도모할 수 있었다.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지침은 2000년 9월 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한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른 것이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창조적 지식기반국가’<sup>1)</sup>의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 목표로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축적, 보존, 공유, 활용 등의 지식정보자원관리 과정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설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곧 각종 지식정보자원의 전자적 공유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2000년부터 2004년에 걸쳐 이른바 1차 지식정보자원관리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전략적 DB 구축분야가 선정되고, ①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②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을 활성화하며, ③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④ 지식사회기반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며, ⑤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는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추진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양적인 확대를 기하고, 국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국가통합검색시스템(현재, 국가지식포털)과 각 분야별 종합정보센터간의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종합정보센터에서 각 기관들이 구축한 DB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그 결과 각 기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업 중에 구축한 DB가 공공부문의 학술자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자원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저작권 확보 및 유료서비스 등의 한계로 민간의 고급 지식정보 디지털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식정보 DB와 각 기관의 자체예산에 의하여 구축한 DB의 상호 연계 서비스로 지식정보자원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제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에는 1단계 사업의 비전인 ‘창조적

---

1)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란 국가의 구성주체들이 지적 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국가의 제반 사회·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해가는 국가를 말한다(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2000. 9, 10쪽).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의 기초 위에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활성화'란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활성화'란 국민·기업 등 지식정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고, 재가공·유통함으로써 지식정보자원을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활용하여 경제·문화 부문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제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서 ① 활용도 중심으로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확대 ②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및 유통 활성화 가속화 ③ 지식정보자원의 국가적 관리체계 효율화 ④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및 제도정비 ⑤ 지식정보자원의 국제협력 강화를 설정하고자 하고 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한 『제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기본계획(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지식정보 관리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정보화 계획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거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시행은 2000-2004년 5개 중점 분야가 선정되어 진행되었는데,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전산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표 주관기관으로, 민족문화추진회(현재, 한국고전번역원)·서울대학교 규장각(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식자원관리사업 2단계 1차 연도인 2005년부터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12개 전문정보센터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국사편찬위원회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차수	기간	사업참여기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기타 사업
1차	2000. 3. ~ 2000. 12.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독립기념관
2차	2001. 10. ~ 2002. 8.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독립기념관
3차	2002. 11. ~ 2003. 9.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독립기념관

4차	2003. 6. ~ 2003. 11.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추경), 민족문화추진회(추경), 서울대학교 규장각(추경)
5차	2004. 4. ~ 2004. 11.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6차	2005. 3. ~ 2005. 11.	국사편찬위원회(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및 포털시스템업그레이드사업)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6차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로서 한국역사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함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여 온 역사정보화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여 온 까닭에 역사자료 아이템과 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다양하여 많은 양의 DB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DB 구축 공정 및 웹 서비스 체계 등에서 통일성을 결여한 것이 사실이었다. 아이템별로 개별적으로 DB를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검색엔진, 서비스방법, 시스템 환경 등의 차이로 나타나, 데이터 및 시스템의 관리나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정보화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방책을 살피게 되었으며, 이에 협의회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각 시스템 DB의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 및 DB 표준화,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정보화의 목표로 제시하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분 \ 단계	1단계(2004~2005)	2단계(2006~2008)
발전전략	역사자료의 표준화 및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활성화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완성
시행계획	·역사자료정보화의 표준화 및 통합체계 구축 ·각 부서간 연계체계 구축 ·자료수집정리시스템 구축 ·코드·문서압축 표준화 ·관련기관간 표준화 자료체계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시스템 운영 및 포털서비스 ·국내외 학회 등 표준화 유도 및 일원화 검색시스템 구축

## 2.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와 전문정보센터 협의회의 구성과 활동

### 2.1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국가지식정보자원의 시행으로 2001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에서 2003년 동안에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추진회 · 서울대학교 규장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역통)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4개 기관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DB를 구축하여 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그 외 역사분야 기관들이 구축한 DB는 분산검색을 통해 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종합정보센터로서 역할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중적인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04년 사업 시기에는 종합정보센터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고 통합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 시기와 함께, 지식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으며 종합정보센터로서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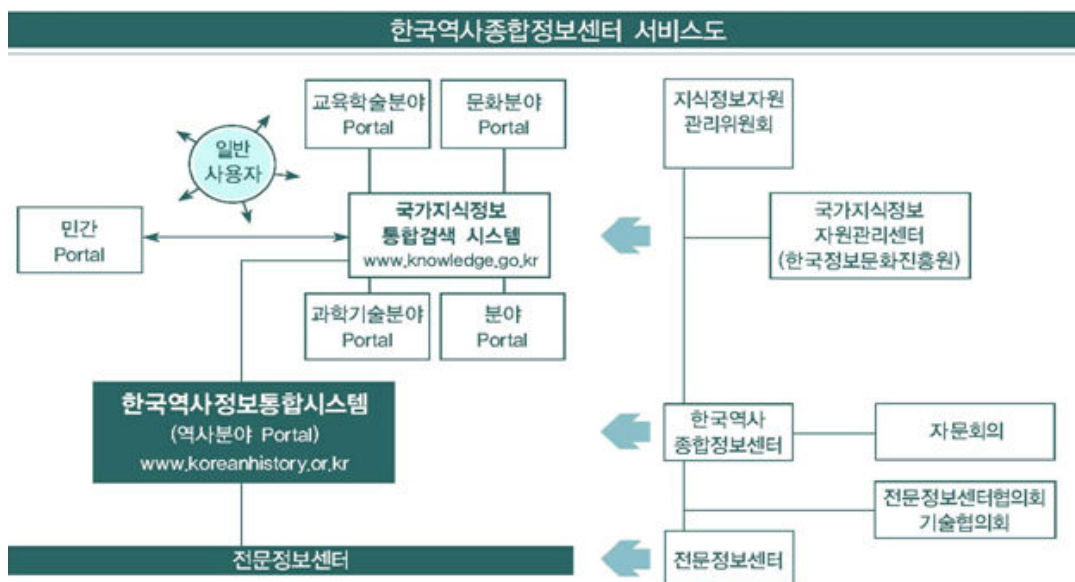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서비스 구성도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는 역사포털인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역사 정보 DB 구축 및 제공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전문정보센터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문회의,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및 기술협의회의 등을 지원한다.

한적자료의 검색 지원을 위한 검색엔진의 개선, 전문정보센터의 원문정보검색 시스템과 종합정보센터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통합메타데이터 요소와 통합디렉토리를 포함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지침’의 작성 및 보급 등의 활동도 포함한다.

### 1) 표준화 활동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지침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메타데이터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더블린코어에 기반 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기술
  - 전문정보센터의 다양한 역사자료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통합메타데이터 작성
  - 사용편의성을 목표로 단순, 명확함을 추구
  
- 통합 디렉토리
  -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통합디렉토리 서비스에 사용되는 분류안을 말하며,
  - 전문센터의 메타데이터는 주제 분류의 매핑 작업을 통해 역통의 특정 디렉토리로 분류함.
  - 통합디렉토리는 전문정보센터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종합정보센터에서 작성·운영하며,
  - 전문정보센터 자료를 어느 디렉토리로 매핑할 것인가는 종합센터와 전문센터의 협의 하에 결정함.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업무 상세매뉴얼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 참고자료
  
- 역사분야연계를 위한 OAI 기반 학술정보유통체계
  - 종합센터와 전문센터에 메타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 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를 사용

- 역사 콘텐츠를 위한 메타데이터(HOMS; History Object Metadata System)
  - 국사편찬위원회 원문검색시스템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 역사 콘텐츠 즉 디지털 원문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편적 요소를 종합, 정리하여 HOMS(History Object Metadata System)를 완성하여 적용
  - 필요 기관이나 신규 전문정보센터에 보급
  
- 일관된 원문 접근을 지원
  - OPEN URL을 응용한 대표 접근 페이지를 작성
  - 전문정보센터의 원문검색 사이트의 개선 등으로 인한 디렉토리 정책이 변경 되어도 일관된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인터페이스 구성을 통한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문 접근 조건을 제안 및 권고

## 2) 한적자료검색 지원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KRISTAL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검색엔진은 한국의 KISTI에서 개발한 IRMS (Information Retrieval Management System)로 역사분야와 MOU 체결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한적자료 검색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등의 기관이 검색엔진으로 KRISTAL을 채택하고 있다.

KRISTAL은 한자에 대한 한글 음가사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사전을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작한 특수용어사전, 이체자사전 등을 검색엔진에 적용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한적자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자한글음가사전
  - 한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코드에서는 각 국가별로 사용되는 한자를 단일화 원리에 의해서 부수와 획수에 맞춰 배열하고 있다. 한자를 부수와 획수 순으로 배열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자생활 방식에 맞는 한국어 음절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한자에 대한 한글 음절순 테이블을 작성하여 적용하였다.
  - 한자에 대한 한글음인 음가는 대부분 단음절로 되어 있으나 2자 이상으로

읽히는 예도 있다. 한자 데이터에 대해 한글음을 색인을 할 때 적용하는 음가로서 음가 사전테이블 항목 중 ‘색인 음가’에 있는 음은 모두 대표음이 된다.

	A	B	C	D	E	F	G	H
1	자형	코드	대표음1	대표음2	대표음3	대표음4	대표음5	대표음6
737	麗	U+36E4	리	이				
738	媿	U+36E5	탑					
739	媿	U+36E6	람	남				
740	媿	U+36E7	람					
741	媿	U+36E8	강					
742	媿	U+36E9	축					
743	媿	U+36EA	엄					
744	媿	U+36EB	석					
745	媿	U+36EC	륙	육				
746	媿	U+36ED	석					
747	媿	U+36EE	수					
748	媿	U+36EF	면	반	찬			
749	媿	U+36F0	혼					
750	媿	U+36F1	외					
751	媿	U+36F2	발					
752	媿	U+36F3	예					
753	媿	U+36F4	녀					

그림 2. 한자-한글음가 사전

■ 특수용어사전

- 특수용어는 한자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음가 색인에서 제외된 음가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를 뜻한다. 보다 넓게는 ‘한국역사정보시스템’에서 웹을 통해 제공하는 자료에 출현하는 용어로서,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임에도 다르게 표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3.1운동(三一運動), 정1품(正一品)처럼 한자를 숫자로 표기하는 용어 등을 포함한다.
- 2005년말 현재 5,680개 용어에 대해, 2,631개의 질의어-확장어 세트를 수록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불교관련 자료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연계되면서 불교에서 쓰이는 특수용어들도 이 사전에 통합되어 특수 불교용어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 특수용어사전은 한자음, 연계한글음, 대표어(대표용례), 빈도수 등으로 구조로 구성한다(그림 3).
- 이두를 사용하는 한자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성된 이두자료읽기사전도 지원한다(그림 4).

	A	B	C	D	G	H	I	J	L
1	한자음 연계	연계 음가	대표어	대표어 빈도수	검색어	역통검 색결과	Naver검 색결과	국문검 색결과	확장1
2192	蜿	열	蜿蜿	2	유열				蜿蜿
2193	沼	조	干三沼二	2	干三沼二	0	-	0	간삼조이
2194	沼	조	干三沼二	2	간삼조이	0	-	1	干三沼二
2195	沼	조	大沼	2	대조	0	-	0	대沼
2196	沼	초	沼兒	3	초의	971	-	4857	沼兒
2197	沼	초	沼兒	3	沼兒	1	-	-	沼兒
2198	沼	초	沼兒	3	沼兒	1	-	-	沼兒
2199	纒	조	玉纒	2	玉纒				옥조
2200	纒	조	玉纒	2	옥조				玉纒
2201	沼史	조이	沼史	2	조이	0	-	0	沼史
2202	沼史	조이	沼史	2	沼史	0	-	0	조이
2203	率	수	副衛率	2	부위수				副衛率
2204	率	수	副衛率	2	副衛率				부위수
2205	率	수	衛率	2	위수				衛率
2206	率	수	衛率	2	衛率				위수
2207	率	수	倡率	2	창수				倡率
2208	率	수	倡率	2	倡率				창수
2209	賽	최	墨賽	4	묵최				墨賽

그림 3. 특수용어사전

	A	B	C	D	E	F	G
1	한자음연계	대표어		대표어 빈도수	검증	확장 어휘 수	검색어
170	이두	白乎所	3	7	TRUE	7	사온 바
171	이두	白乎所	3	7	TRUE	7	여짜온 바
172	이두	白乎所	3	7	TRUE	7	옵신 바
173	이두	白乎所	3	7	TRUE	7	수분바
174	이두	白乎所	3	7	TRUE	7	수분바
175	이두	白乎所	3	4	FALSE	7	白乎所
176	이두	白乎所	3	4	FALSE	7	사오며
177	이두	白乎所	3	4	FALSE	7	수분며
178	이두	白乎所	3	4	FALSE	7	수분며
179	이두	不諭在	3	5	FALSE	7	不諭在
180	이두	不諭在	3	5	FALSE	7	아닌
181	이두	不諭在	3	5	FALSE	7	아닌 것
182	이두	不諭在	3	5	FALSE	7	아닌디견
183	이두	不諭在	3	5	FALSE	7	아닌지견
184	이두	順可只	3	4	FALSE	7	로부터
185	이두	順可只	3	4	FALSE	7	順可只
186	이두	順可只	3	4	FALSE	7	순함직
187	이두	順可只	3	4	FALSE	7	조차도
188	이두	順音可	3	3	FALSE	7	順音可
189	이두	順音可	3	3	FALSE	7	순흥직

그림 4. 특수용어사전-이두자료읽기사전

■ 이체자사전

- 이체자 정보에 대해 각각 대표자와 이체자(별자), 그리고 각 대표자와 이체자에 대한 이형자로 구분하여 독음 순으로 정리하여 적용한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연번	대표	부수	총획	이체1	구분	이체2	구분	이체3	구분	이체4	구분	이체5	구
1037	1036	從	彳	11	從	속	從*	속	从	동	从	본		
1038	1037	復	彳	12										
1039	1038	微	彳	13	微	동								
1040	1039	德	彳	15	德	속	惠	표	惠	속	惠	동	意	동
1041	1040	徵	彳	15	徵	동								
1042	1041	徹	彳	15	徹	간								
1043	1042	徹	彳	16										
1044	1043	忉	心	5										
1045	1044	忉	心	6										
1046	1045	忉	心	6	忉	동								
1047	1046	忌	心	7										
1048	1047	忘	心	7	忘									
1049	1048	恕	心	7	恕	고								
1050	1049	忍	心	7	忉	동								
1051	1050	忱	心	7	忉	속								
1052	1051	怯	心	8	怯	본								

그림 5. 한자 이체사사전

### 3) 신출한자 처리

한적 자료 구축 과정에서 유니코드로 입력이 불가능한 문자를 신출한자로 규정하고 처리하고 있다. 신출한자를 수집, 검증과정을 거쳐 비표준 한자의 표현을 가능하도록 하여,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출한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5,980자의 신출한자를 확인하였고, 현재 표준코드가 없기 때문에 해당 폰트가 없으므로 문자의 이미지를 만들어 콘텐츠의 한자표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신출한자 검증결과 목록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다.

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	일련번호	입시코드	기관명	사업년도	DB명	출전 서명	출전 목음명	위치 정보	파일명	전후문맥	원천 이미지	자형	파자	부수번호
7	06_규광각_0341	규광각_9067	규광각한국학연구원	2006	해설말해제 자료	3권	규광각소강외래해설해제	204398열	의체_해제.xml	大體에는 補 1수, 年後 補 1集과 ★ <補/乙> 只, 轉子 1수가 출항으며	규광각_9067.png	漣	漣/乙	005
8	06_전북대_0033	전북대_0033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6	고문서		1825년에 津醜 列衛面에 사는 金龜 釣가 柳成한 戶口菓子	jhm00237_a01	jhm00237.xml	五辛去。一所主收雪/乙交年二十四	jhm00237_a01.png	𪛗	雪/乙	005
9	10_한중연_0431	한중연_아사_005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조선조아사 및일기자료		JE_A_24245_001_00006	1	a_kma_24245_001.xml	士士兼陰消管子轉*(音/乙)(note type="reader")轉</note>毛尾/note)	JE_A_24245_001_00006_1.png	𪛗	麻/乙	005
10	10_한중연_0154	한중연_공중_문화_015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한국공중문화사자료		JE_A_20118_008_00551	1	a_kma_20118_008.xml	等少壯男子轉不及一毫亮處*(音/乙)(note type="reader")轉</note>柳整轉家申轉	JE_A_20118_008_00551_1.png	𪛗	子+尗	006
11	06_전북대_0024	전북대_0024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6	고문서		1768년에 求 體醜 淸光面에 사는 韓龜 釣가 柳成한 戶口菓子	고 14558_a01	14558.xml	淸光面第一淸田里第一淸田音申卡+口金	고 14558_a01_1.png	𪛗	一/占	008
12	05_민수_0010	민수_0018	민족문화추진회	2006	한국문헌종합	이재유고(鄭 廟遺稿)	한국문헌종합 246집	mm_a246_000b-1	kc_mm_a57_7_av001.xml	度此發轉而淸白(或/木)旁。認▼▼發轉。發轉轉之某轉旁。	mm_a246_000b-1.png	𪛗	一/儿/尸/冂	008
13	10_한중연_0095	한중연_공중_문화_00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한국공중문화사자료		JE_A_20046_001_00083	2	a_kma_20046_001.xml	沈(note)孫子之</note>孝王(note)臣下之孝王自孫(note type="reader")及</note>趙侯(轉)以 柳常以至上下(木/乙/云)(note type="reader")轉	JE_A_20046_001_00083_2.png	𪛗	一/轉/云	008
14	02_국립_0003	kh7_003	국립한글위원회	2006	한국근현대 한글자료	대한민국인물 연감 1권		310면 후1행	mm_b012_008_0220	金龜(이+(乙-))	mm_b012_008_0220.png	𪛗	이+(乙-)	009
15	05_민수_0206	민수_0206	민족문화추진회	2006	한국문헌종합	청강관지서(靑莊館志書)	한국문헌종합 258집	mm_a258_021a-1	kc_mm_a57_7_av051.xml	龜以蓬內轉爲多。此轉轉法也。後入唐之。多書▼	mm_a258_021a-1.png	𪛗	人+彡	009
16	06_민수_0206	민수_0206	민족문화추진회	2006	한국문헌종합	청강관지서(靑莊館志書)	한국문헌종합 258집	mm_a258_021a-1	kc_mm_a57_7_av051.xml	龜以蓬內轉爲多。此轉轉法也。後入唐之。多書▼	mm_a258_021a-1.png	𪛗	人+彡	009

그림 6. 신출한자 검증결과 목록

#### 4) 역사관련 학회 연구단체 웹 호스팅 지원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에서는 한국사 관련 기관 및 연구학회·연구소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빌더(k2web) 제공한다. 기존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000.koreanhistory.or.kr을 사용할 수 있다.

#### ▪ 2008년 현재 웹호스팅 지원 기관 (10개)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동학농민혁명 종합지식정보시스템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근대한일의교자료
- 신라사학회
- 종로도서관 고문헌원문검색서비스
- 한국고문서학회
- 한국근현대사학회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한국사학회
- 한국인물사연구소

#### 5)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구축

2001년 시소러스사업은 한국역사기초시스템구축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기왕에 추진되었던 역사정보화사업이 원문 중심의 DB 구축에 한정되었다면, 시소러스사업은 한국역사용어를 수집·분류, 조직하여 효율적인 검색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로써 국사편찬위원회가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소장자료검색」 「승정원일기」 「한국사연구회보」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목록DB」 「마이크로필름 목록·원문 서비스」 「홈페이지 DB」 등의 자료뿐만 아니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료들을

용어 관계에 의한 확장 및 통제어 검색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합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사 연구를 위한 자료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2001년 사업 1차 연도에 한국역사용어 분류체계 및 검색용어집을 작성함과 아울러 28만 어휘를 조사 분류하고, 1만 개의 디스크립터를 완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2007년 말에 시소러스 디스크립터 총 60,000개 이상, 인명·지명·서명 전거 데이터 10,000개 이상을 구축하였다. 2005년부터는 한국역사용어 영문시소러스를 구축하여 한국역사용어의 영문용어 간의 관계 및 현행 표기 기준에 맞는 영문표기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데이터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검색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별개의 사이트(한글 <http://thesaurus.history.go.kr>, 영문 <http://thesaurus.history.go.kr/eng/>)로 제공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2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전문정보센터협의회는 종합정보센터의 구성과 동일하게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었다. 지식사업 초기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역사분야 DB 구축 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 지식사업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나타나면서 기존 전문정보센터협의회 회원기관의 승인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그 동안 쌓은 DB 구축 관련 경험이나 한적자료 검색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역사 관련 자료의 통합 검색 지원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는 기관도 있다. 일부 기관은 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의 DB를 구축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각 기관은 전문정보센터 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회원으로서 전문정보센터 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종합정보센터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전문정보센터 협의회가 지식사업에 기반하여 구성된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식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의 참여나 서비스의 향상성을 강제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전문정보센터 협의회의 확장 및 활성화 시기 이후로, 지금까지 다행히 서비스나 기관간의 협력에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식사업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회원기관들의 공감대 형성과 노력을 통하여 보여준 역사 분야의 협력이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들을 지원, 회원기관으로 협의회에 참가를 유도하는 노력도 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DB를 확충하여 역사정보통합 시스템 및 역사 관련 기관들의 원문검색시스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 1) 참여기관

연도	참여 기관(사이트)
2008년 21개 기관 26개 사이트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아카이브 시스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근대한일 외교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족보자료시스템,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전쟁기념관,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적종합목록, <b>한국국학진흥원 옛문서생활사박물관</b>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07년 21개 기관 25개 사이트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아카이브 시스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근대한일 외교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족보자료시스템,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전쟁기념관, <b>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b> , <b>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b>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적종합목록,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06년 19개 기관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b>국립문화재연구소</b>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b>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b>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b>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b> ,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전북대학교 박물관</b> ,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
2005년 14개 기관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b>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b> ,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b>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b>
2004년 12개 기관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민족문화추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쟁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2)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및 워크숍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는 전문정보센터가 참여하는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및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면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공동 협력하고 있다.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도 가능한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2005년의 국제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회 개최 및 2006년 일본, 중국, 한국의 3개국 사료편찬기관 회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역사정보의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정보센터 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8월 30-31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워크숍
  - 역사자료 콘텐츠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민주화운동 기록정보화의 현황과 과제: 정보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 지식 사업의 향후 전략
  
- 2006년 9월 21-22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워크숍
  - DB표준화 작업의 현황과 과제
  - 이체자정보검색시스템 개발현황과 과제
  - 한자전거시스템의 개발현황과 과제
  - 지식정보표준사업
  - KRISTAL-IRMS 소개
  
- 2006년 6월 16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 한국역사정보화 현안과 대처방안
  
- 2005년 11월 23일 국제협의회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역사분야 정보시스템의 기능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
  - 고전적기반검색시스템(KRISTAL) 소개
  -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의 소개
  -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의 신전자계산기 시스템과 중기적 과제
  -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역사자료관계 데이터베이스

- 2005년 9월 29-30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추계워크숍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메타데이터 유통/연계 관리 시스템 안내
  - 민주화운동 사료 기술 표준 적용- ISAD, ISAAR(CPF) 적용을 중심으로
  - 고전용어 시소러스 개발의 목적과 방법
  - 서울대학교 규장각/민족문화추진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분야 웹 인터페이스 제안
  
- 2005년 6월 17일 전문정보센터기술협의회
  - 시스템 구축사례 발표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학자료 서비스 시스템
  - 전쟁기념관 시스템 구축 사례 발표
  -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표준화 사업 추진 계획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성
  
- 2005년 5월 3-4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춘계워크숍
  - 역사자료 DB 구축 표준화의 필요성
  - DB 구축공정 관리방법론에 대한 경험적 진술
  - 역사자료 DB 상호교환을 위한 제안 1
  - 역사자료 DB 상호교환을 위한 제안 2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 2005년 4월 1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연계지침 수정안 토의 및 확정
  - 역사분야 통합 디렉토리 수정안 토의 및 확정
  - OAI 기반 역사정보유통체계
  
- 2004년 6월 15-16일 전문정보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
- 2004년 5월 17일 3차 연계협의회
- 2004년 5월 10일 2차 연계협의회
- 2004년 3월 12일 1차 연계협의회

### 3.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하 역통)은 각 전문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 작성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검색시스템이다. 역통은 전문정보센터로부터 수집한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여 URI 기반으로 이용자가 원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2003년도까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한 면이 있었고, 여타 다른 역사기관으로부터 4개 기관만의 시스템으로 여겨짐으로써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2003년 9월에 이미 2단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기본계획수립 방안을 추진 중이던 정보통신부에서는 각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역사분야에 있어서도 2단계 지식관리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된 활용도 중심의 지식정보자원의 확대를 비롯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이나 관리체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04년도 5차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서 4개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로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2004년도 개발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책임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4년도 역사분야 지식관리사업에 국사편찬위원회 등 기존의 4개 사업 수행 기관을 비롯하여 국가보훈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쟁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국학진흥원, 성균관대 존경각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연계책임이 더해지게 되었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2003년도 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통합 메타데이터에 의한 검색서비스를 실시하였으나, 그 밖의 독립기념관, 한국국학진흥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여성개발원 등은 분산통합에 의한 검색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분산통합검색에 의한 검색방식은 각 기관의 검색엔진이나 네트워크 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실시간으로 모든 자료를 검색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나 검색결과의 통일성에 있어서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2004년도 지식사업에 참여하는 11개 기관은 몇 차례의 논의를 통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에 의한 검색서비스에 합의하고, 통합메타데이터(안)와

통합디렉토리(안)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작성하여 각 기관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고유성을 살리기 위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메타데이터만 서비스하고, 원문은 각 기관이 서비스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2004년도 사업이 개시된 5, 6월 이후 각 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통합메타데이터 표준(안)과 디렉토리 통일(안)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연결하는 메타데이터 수집관리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 통합메타데이터는 XML 형식으로 기술하고,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더블링크어를 기반으로 하되, 전산원에서 추가한 요소는 nca로, 역사종합정보센터(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가한 요소는 kh로 표시하였다. 필수 요소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자료 데이터의 성격상 입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메타데이터 작성 시에 공백으로 비워두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워 사실상 아이디와 제목 외에는 모두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웹상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디렉토리가 요구되었는데, 각 기관이 보유한 DB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통일적이되 이용자 중심적이어야 했다. 기존 시스템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일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다는 오히려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를 옮겨 놓은 기관 편의적인 것이었고, 더욱이 고서나 고문서의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학계에 있어서도 참여하게 대립되는 것이어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통합 디렉토리는 ‘고도서 - 고문서 - 도서 - 연구자료 - 문서 - 연속간행물 - 목록·해제 - 고전국역서 - 인물 - 지도 - 사진 - 연표 - 멀티미디어자료’의 13개 대항목을 구분하고, 다시 중항목과 소항목까지만 분류함으로써 단순화시켰다. 또한 기관별 특성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디렉토리분류수정이 용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토록 함으로써 향후 조정에 대비하였다. 또한 고도서의 경우 사부분류법에 따르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문서의 경우 중분류를 없애고 문서 종류만을 표기함으로써 논쟁을 피하였다. 기왕에 서비스되던 기관별 디렉토리는 그 항목을 살려둠으로써 기관의 요구에 부응코자 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은 학술적인 분류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간단하고 용이한 점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기관의 관리중심의 웹구정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웹체제로 옮겨가는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후에 연계 기관이 추가되고 자료가 다양화 되면서 ‘유물유적 - 금석문’이 추가되어 15개의 대항목을 가진 통합디렉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현재 21개 기관의 2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약 850만 여건의 메타데이터가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표 4. 역통 기관별 메타데이터 현황

(2008-10-06)

기관명	건수
경상대학교 문천각	52,279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61,96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2,944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994,48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395,6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498,43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031,47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192,726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불교문화종합시스템	22,884
동학농민혁명종합지식정보시스템	15,218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10,9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아카이브시스템	175,900
부산시민도서관 근대한일외교자료	5,733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경학자료시스템	18,538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한국족보자료시스템	91,763
전북대학교 박물관 호남기록문화시스템	17,899
전쟁기념관	3,130
조선총독부관보데이터베이스	95,312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 검색 서비스	755
한국고전번역원	771,642
한국고전적종합목록	321,686
한국국학진흥원 옛문서생활사박물관	201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198,4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	31,342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552,34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15,727
합계	8,579,378

표 5. 역통 분류별 메타데이터

(2008-10-06)

디렉토리명	건수
고도서	2,996,795
고문서	89,153
도서	1,253,203
문서	351,206
연속간행물	1,893,478
고전국역서	803,675
연구자료	184,731
목록 해제	402,436

인물	173,717
지도	6,387
사전	5,218
연표	194,516
멀티미디어자료	217,996
유물-유적	3,923
금석문자료	2,944
합계	8,579,378

### 3.1 시스템 구성

#### 1) 통합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역통의 메타데이터는 KHON이라는 하나의 메타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며, 메타데이터의 작성 및 교환은 xml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KHON 메타데이터에는 크게 11개 요소로, title(제목), creator(생성자), subject(주제), type(자료유형), identifier(식별자), publisher(발행자), date(날짜), description(요약정보), format(포맷), relation(관련자료), metaMetadata(관리메타데이터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통합메타데이터 요소

	주요소	하위요소	요소의 출처	인코딩 스킴	카디날리티
1	title(제목)	mainTitle(대표제목)	nca		1..1
		alternative(대체제목)	dc		0..n
2	creator(생성자)	author(작성자)	kh		0..n
		editor(편집자)	kh		0..n
		docSender(발신자)	kh		0..n
3	subject(주제)		dc	[역통 통합분류]	1..n
4	type(자료유형)				0..n
5	identifier(식별자)	uri(식별기호)		URI	1..1
		url(위치정보)	dc	URL	1..1
6	publisher(발행자)		dc		0..1
7	date(날짜)	issued(발행일)	dc	W3C-DTF	1..1
		created(생성일)	dc		0..1
		modified(갱신일)	dc		0..1
		docIssued(원자료발행일)	kh	YYYY-MM-DD 를 기반으로 음력윤달처리를 위한 형식 적용	0..1
		docCreated(원자료생성일)	kh		0..1
		dateEvent(사건발생일)	kh		0..1

8	description (요약정보)	abstract(초록)	dc		0..1
		tableOfContents(목차정보)	dc		0..1
9	format(포맷)	medium(파일형식)	dc	IMT	1..n
10	relation(관련자료)	isPartOf(부분자료)	dc	URI	0..n
		requires(의존자료)	dc	URL	0..n
11	metaMetadata (관리메타데이터)	mdCenter(메타데이터센터명)	nca	기관의 코드정보	1..1
		unit(단위)	kh	한자리 숫자	1..1

그림 7. KHON 메타데이터 예

```

<?xml version="1.0" encoding="UTF-8"?>
<!DOCTYPE KHON SYSTEM "khon.dtd">
<KHON>
  <recordSet dblInfo="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record>
      <title>
        <mainTitle>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05人事件公判始末書 I
        </mainTitle>
      </title>
      <creator>
        <editor/>
        <docSender/>
      </creator>
      <subject infocenter="KHDP">hd</subject>
      <identifier>
        <uri infocenter="KHDP">hd_001r</uri>
        <url>
          <get>http://www.history.go.kr/openUrl.jsp?ID=hd_001r</get>
        </url>
      </identifier>
      <publisher>國史編纂委員會</publisher>
      <date created="2007-02-07" issued="2007-02-07" modified="2007-02-07">
        <docIssued>1986-12-30</docIssued>
        <docCreated/>
      </date>
      <format>
        <medium>text/xml</medium>
      </format>
      <relation/>
      <metaMetadata>
        <mdCenter KHDP_name="국사편찬위원회" KHDP_url="http://www.history.go.kr">
          NIKH</mdCenter>
        <unit>1</unit>
      </metaMetadata>
    </record>
    ...
  </recordSet>
</KHON>

```

## 2) 연계업무

전문정보센터의 메타데이터 수집은 OAI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추출 작성기와 메타데이터 수집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메타데이터 추출, 수집,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연계작업은 그림 8과 같이 대략 6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림 8. 역통 연계작업 흐름도

연계작업을 위한 연계조사자료 작성 및 원문DB 분석 등의 사전작업을 통하여 메타데이터 추출 룰을 작성하고, 전문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역통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는 그림 9에서 보이듯이 메타데이터 추출작성기를 통하여 메타데이터 추출하여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수집기를 통하여 역통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역통에 전송된 메타데이터는 역통의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후 이용자에게 메타데이터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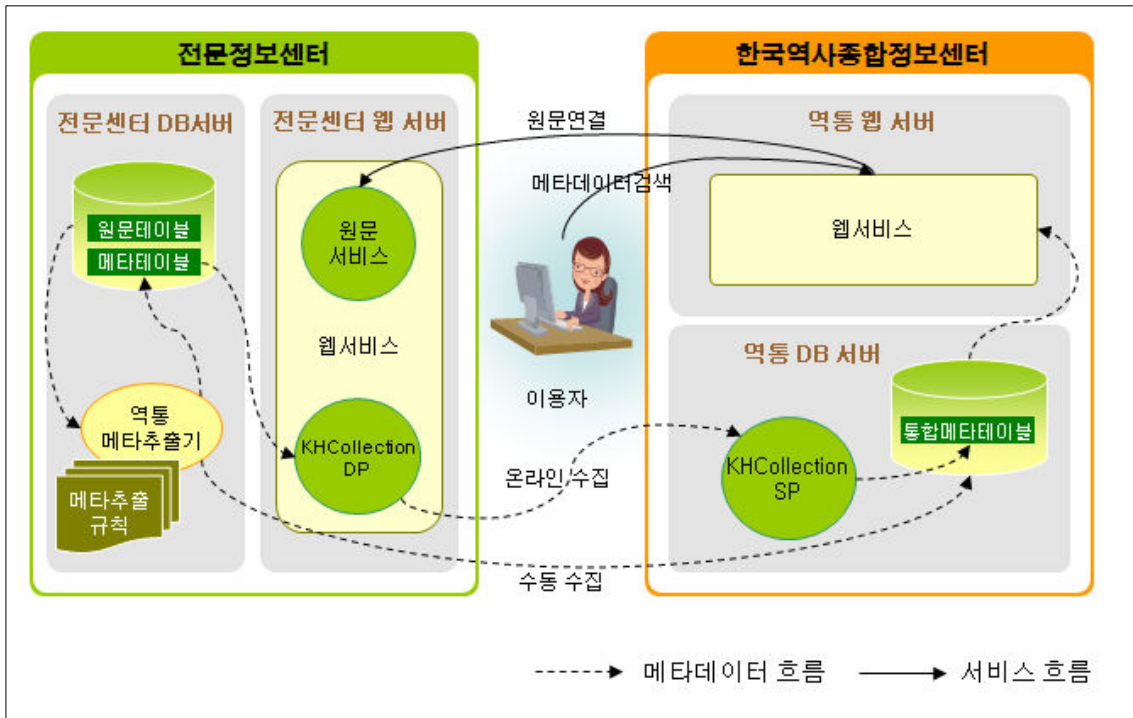


그림 9. 역동 메타데이터 유통 구성도 (OAI-PMH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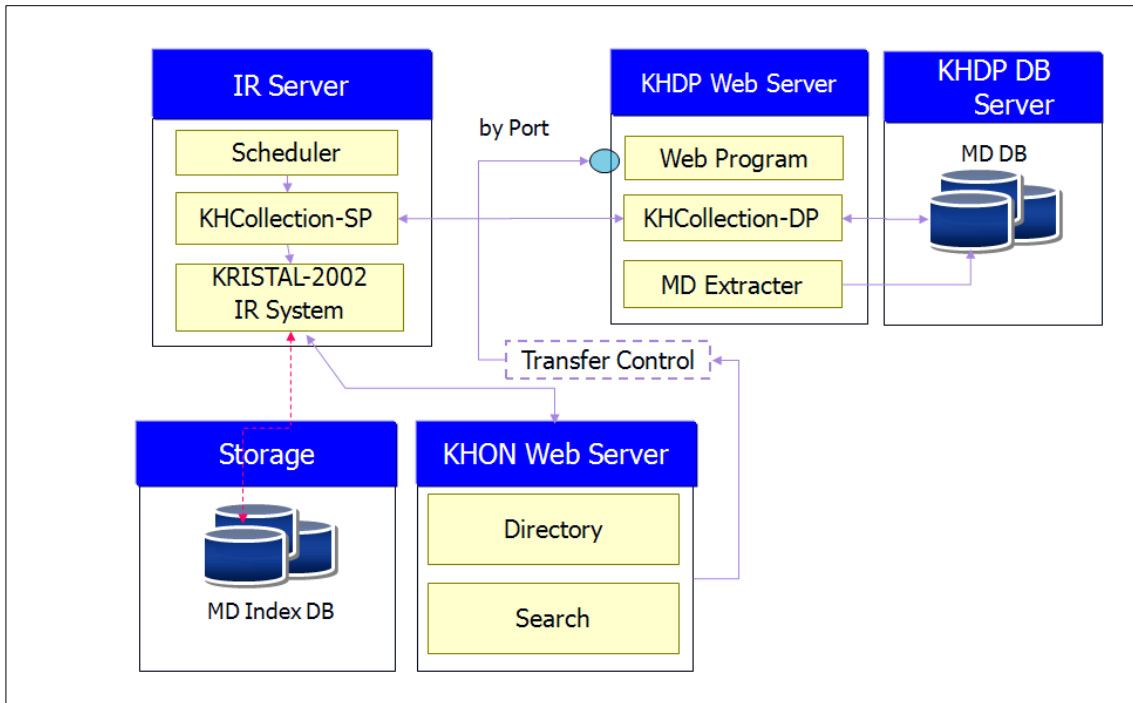


그림 10. OAI-PMH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 3.2 정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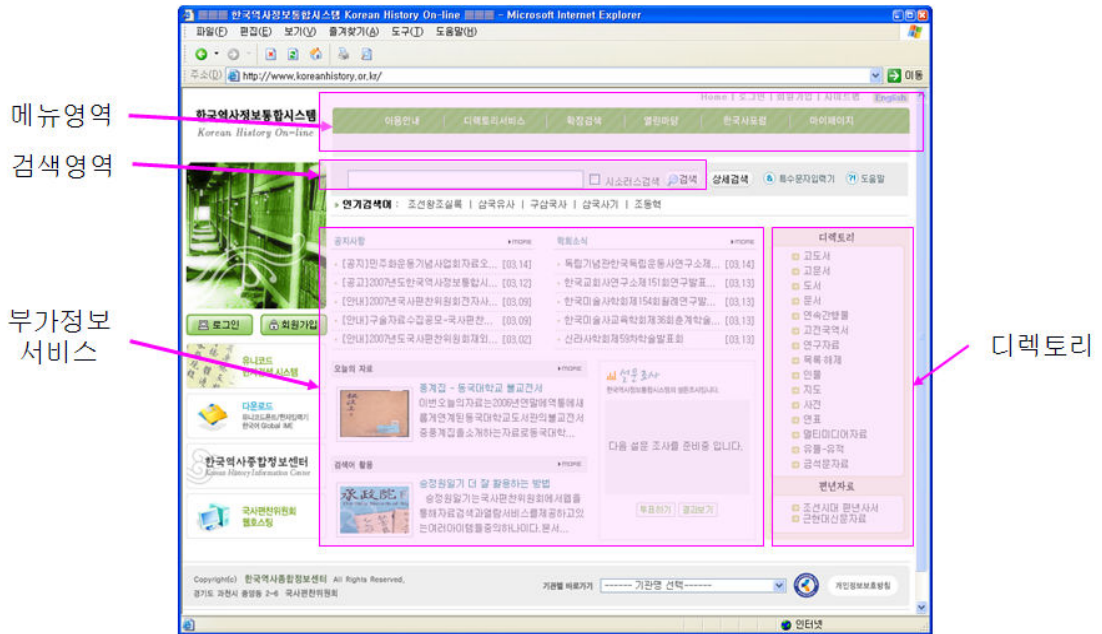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메인페이지

#### 1) 브라우징 서비스

역통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크게 브라우징 서비스와 키워드 검색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는데, 브라우징 서비스에는 통합디렉토리 서비스와 편년자료 서비스가 있다. 통합디렉토리서비스는 연계되는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한 역통의 분류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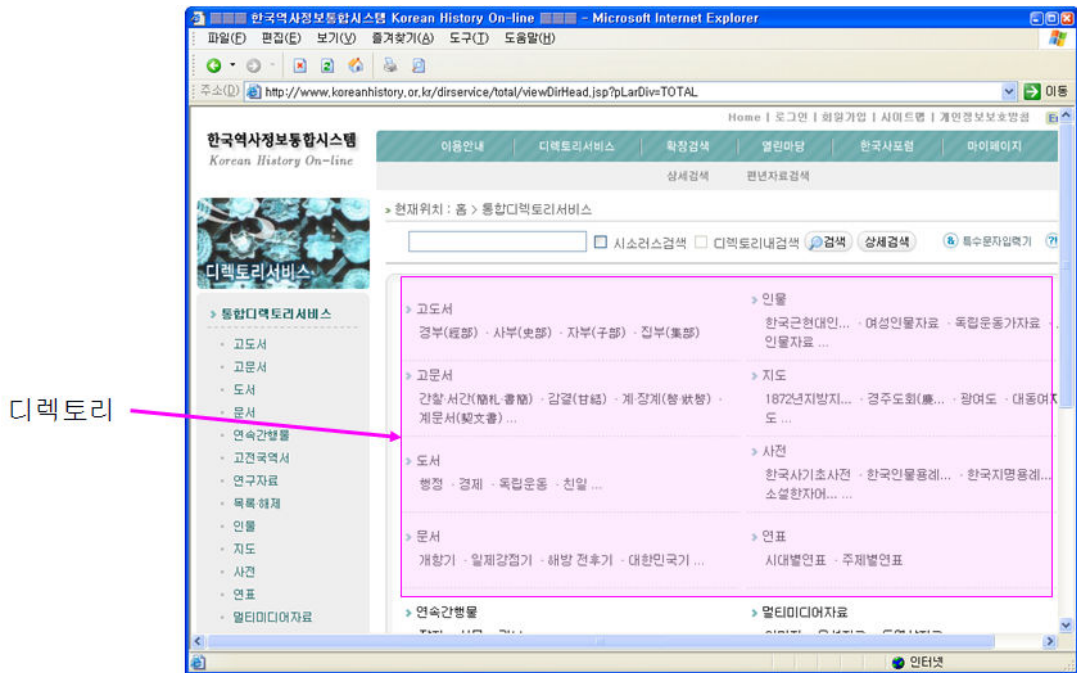


그림 12. 디렉토리 서비스

편년자료서비스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같은 조선시대 편년사서를 대상으로 왕대별, 연도별 브라우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편년자료 서비스는 편년자료검색과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있어, 정보검색 서비스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브라우징 서비스와 키워드 검색 서비스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예라 할 수 있다.

- 조선시대 편년사료의 왕대별 브라우징
  -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 일성록 (日省錄)
  - 내각일력 (內閣日曆)
  
- 근현대신문자료 10년 단위별 브라우징
  - 공립신보, 신한민보, 시대일보, 중의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10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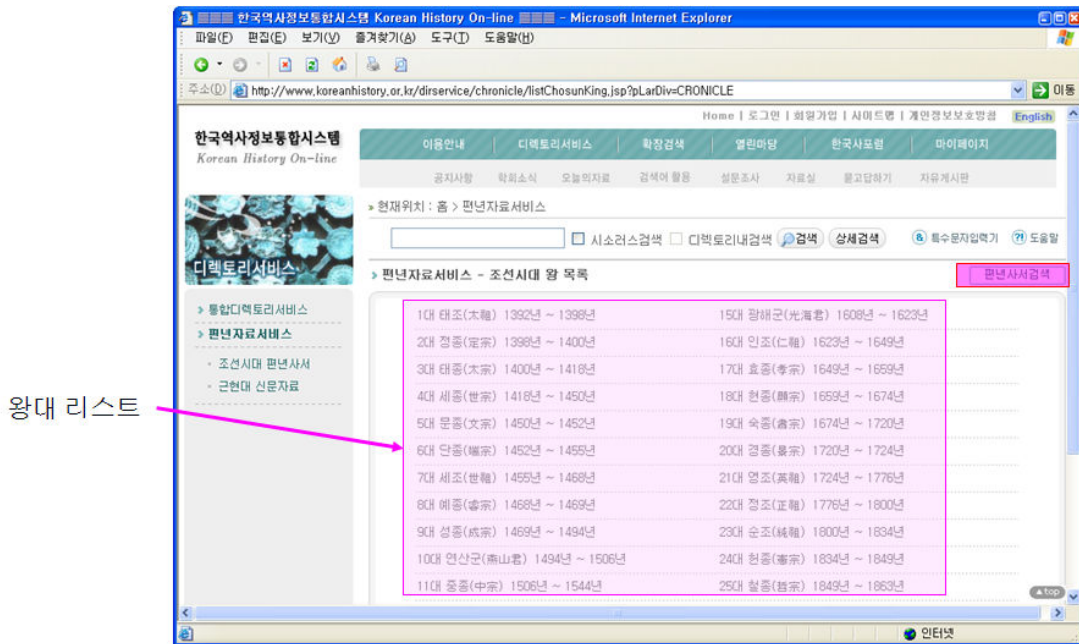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시대 편년자료 서비스

## 2) 키워드 탐색

키워드 검색서비스는 통합검색과 상세검색, 그리고 편년자료검색으로 구성되는데, 통합검색은 전문정보센터의 메타데이터 검색 뿐 아니라 역통 웹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자료’, ‘검색어 활용’ 등의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한다. 상세검색은 메타데이터 요소별, 전문정보센터별, 그리고 디렉토리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편년자료검색은 조선시대 편년사서와 근현대 신문자료라는 두 종류의 자료군을 대상으로 왕력이나 서기년 등의 연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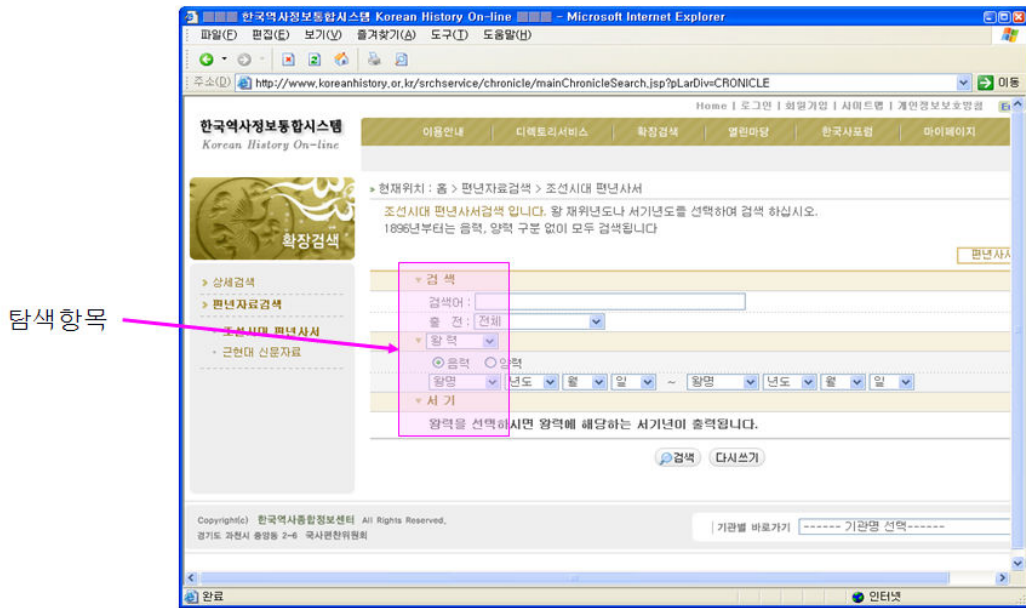


그림 14. 조선시대 편년자료 검색

### 3) 부가 서비스

- 오늘의 자료
  - 연계된 원문정보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안내
- 검색어 활용
  - 역통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제공
- 학회소식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학회 및 연구 관련 소식
- 한국사포럼
  - 연구 커뮤니티를 지원
- 마이페이지
  - 즐겨찾기 및 이전 검색목록을 지원

## 4. 앞으로의 과제

### 4.1. 전문정보센터 참여 안정화 및 확대

전문정보센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2008년 10월 현재 총 2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지식자원관리사업법에 의거하여 결성되었다는 한계로 인해, 지식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회원기관 및 담당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한 각 기관 시스템의 이용률 향상을 기대하는 등의 동질적인 유대감 외에,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풍부한 역사 콘텐츠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기반으로 역사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 4.2. 메타데이터 재구성

현재 역통에서는 DC(Dublin Core)를 기반으로 하는 KHON 메타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 종류의 단순한 메타데이터 세트만으로 다양한 역사자료를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유형, 예를 들어 고도서, 고문서, 공공문서, 일반도서류 등 역사 자료의 유형별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과 각 자료의 유형별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하는 작업 등의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메타데이터 세트 내의 요소들을 ISAD(G) 등을 참조하여 영역별로 구분하는 것 또한 유용할 것이다. 원자료의 의미 영역, 형태 영역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의 식별 영역, 이력 영역 등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다. 메타데이터의 영역 구분은, 특히 메타데이터 코어 세트 뿐 아니라 슈퍼 세트를 만들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유형별 특정 메타데이터 세트가 정해지면 그것의 표현을 위한 DTD 혹은 스키마(XML Schema)와 메타데이터 저장소 설계를 위한 표준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세트에 따라 만들어진 메타데이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등록기(Metadata Registry)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특정한 메타데이터

들은, 그 메타데이터가 어떠한 세트를 따르며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유통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메타데이터 등록기에 등록함으로써 자유롭게 유통되고 다른 메타데이터와 호환, 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 4.3. 정보검색 서비스 확장

현재 역통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검색서비스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 2004년에는 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하여 OAI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KHCollection을 이용한 자동 수집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여 메타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역사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편년자료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용자 중심적인 역사정보통합검색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유지,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정보검색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벡터공간모델 알고리즘을 적용, 검색결과를 순위별로 정렬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한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다. 역사자료의 특성상 한적자료가 많아 이러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특정 자료군을 대상으로, 여러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장 최상의 알고리즘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대별 혹은 주제별 특정기준에 맞는 자료군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도 또한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진보된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는 다양한 접근점을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역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격차: 아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고찰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의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Network Divide: Reflections on Networking Asia  
[The Asia Art Archive Approach]

피비 웡  
(Phoebe Wong)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 수석 연구원

본 포럼에 강연자로 초대하여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아시아 내에서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AA)**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이하 AAA)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현대미술 전시 및 행사가 증가하면서, 그에 부응하여 2000 년도에 설립된 젊은 기관이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비영리 기관이자 기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AAA 는 국제적인 맥락 안에서 그 지역의 최근 시각 예술사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AA 는 이 분야로는 첫 번째 예술 자료 센터이자 도서관 혹은 플랫폼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1 차 및 2 차 자료를 보유한 기관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다. 현재 홍콩에 위치한 4,000 평방 피트의 공간과 웹사이트에서 23,000 개가 넘는 타이틀로 검색 가능한 자료들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AAA 는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료 컬렉션 이상의 역할을 표명해왔으며, Research+부서에서 진행하는 정기적인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와 비평적인 생각을 유도하고 이 풍부한 자료를 더욱 많은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AA 는 귀중한 자료 및 ‘아이디어’ 센터일 뿐 아니라, 아시아 현대 미술계 내에서 네트워크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AA 는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미술계의 중요한 전시나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동참함으로써 미술계 행사를 기록하는 활발한 활동을 한다.

2007 년에는 향후 3 년에서 5 년 사이에 5,000 만 홍콩 달러(미화 640 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기부금의 많은 부분이 AAA 의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차후에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아카이브에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시아를 네트워킹하기(Networking Asia)**

각 지역에 포진한 자문 위원회와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AAA 는 귀중한 자료 및 ‘아이디어’ 센터이자 아시아 현대 미술계에서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AA의 연구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학술적인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단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문위원단은 2008년 현재 총 38명으로, 각 지역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 큐레이터, 그리고 비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AAA는 이렇게 견문이 넓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조직 내 위원들과 해외에 있는 연구원 임명이나 AAA 컬렉션의 범위,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의 구상 등을 수시로 함께 의논하게 된다.

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구직의 창출은 소통과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통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끊임없이 존재함으로써 각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과 함께 자료들을 주고 받는데 가장 유용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기관은 현재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한국,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태국을 포함한 9개국에 9명의 연구직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홍콩 사무국 내에 있는 Research+부서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

AAA는 2002년에 대중화(大中華)권 지역을 담당하는 한 명의 상근직과 2명의 파트타임 스텝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이후 2004년과 2005년경에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한국의 파트타임직이 보강되었다. 제한된 예산 문제로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개의 연구직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지원 국가를 싱가포르에서 보다 관심이 요구되는 역동적인 미술 현장인 필리핀으로 옮기게 되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한 상근 연구직을 보강하여 현재 9개 지역의 연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 4월 이후부터는 상근직과 파트타임 연구원 비율이 5:4가 되어 상근직 수가 파트타임직 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우리가 찾는 연구원들은 AAA에 소속되기 전부터 각 나라에서 그 지역 예술 커뮤니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확신을 갖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요소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AAA 연구원들은 전시 및 예술 관련 행사를 보고 기록하며, 자료들을 구분·수집 및 취합하고, 예술계의 작가나 전문가를 방문하고 인터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 내에서 그들이 상주하는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 중요한 전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곳으로 이동하여 직접 현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홍콩 사무국으로 운송된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해외에 있는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서 지역 미술계와 깊이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 링고 부노안(필리핀 연구원)

필리핀에서 AAA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AAA와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꺼이 자신의 자료를 기증하고 나누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 AAA 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이런 유형의 활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지역 인사들과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sup>1</sup>

#### 나라완 파툼밧(태국 연구원)

태국에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태국 예술 커뮤니티가 각자가 속한 출신 학교 및 기관 등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그룹으로 확연히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이 홀로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자립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부류에든 넣으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엮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여기서 어떤 이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먼저 소개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sup>2</sup>

또 다른 네트워킹의 경로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을 하는 것이다. 지난 수 년 간 AAA 는 워크숍, 토크, 심포지엄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콩 아트센터(The Hong Kong Arts Centre, 홍콩), 아트 스쿨(Art School, 홍콩), 서브스테이션(The Substation, 싱가포르), 홍콩 중문대, 파라사이트(Para-Site Art Space, 홍콩), MOMA(뉴욕), 구겐하임 미술관(뉴욕)등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왔다.

타 기관들과 협력했던 최근 프로젝트들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필리핀 연구원 링고 부노안이 시작한 것으로, 우리 아카이브는 현재 필리핀 아방가르드 미술계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로베르토 차벳(Roberto Chabet)을 연구하기 위해 마닐라에 소재한 로페즈 미술관과 협업 중이다. 차벳에 관한 이 특별한 연구는 이 예술가의 근 오십 년에 해당하는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중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공동 연구 기관인 로페즈 미술관은 지역 내에서 차벳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에 대한 독보적인 정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9 년 중반 경에 마무리되며, AAA 와 로페즈 미술관 양측은 모두 일반인 열람과 보존을 위해 사진, 글, 그 밖의 자료들에 대한 하드 카피와 디지털 파일을 갖게 될 것이다.

AAA 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IISG(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아티스트이자 연구원인 레이 랑겐바흐(Ray Langenbach)가 20 여 년에 걸쳐 모은 동남아시아의 행위예술 및 극예술과 관련된 개인적인 비디오 기록물 컬렉션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2009 년 3 월말 예정)는 1000 시간 분량의 아날로그 테이프를 디지털 형식으로

<sup>1</sup> 링고와의 이메일 서신 내용 중 발췌

<sup>2</sup> 나라완와의 이메일 서신 내용 중 발췌

변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자료에 주석을 달고 문맥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AAA 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또 다른 협력기관인 서브스테이션(The Substation)과 공동으로 “동시대 비교(Comparative Contemporaries)” 라고 명명된 웹을 통한 작품집 시리즈를 추진 중이다. 웹사이트에 올려진 작품집은 AAA 가 관리하게 되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는 2009 년 중순에 올릴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작품집 시리즈 내에 토론과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06 년부터는 뉴 제로 아트 그룹(New Zero Art Group, 버마 양곤에 위치한 예술 공동체 및 공간), 어 리틀 블라블라(A little blab la, 베트남 호치민 시에 위치한 대안 예술공간), 퀸즈랜드 아트 갤러리 (Queensland Art Gallery, 호주), 싱가포르 미술관 등과 같이 그 지역에 소재한 많은 예술 공간 및 기관들과 함께 중복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교환을 하고 있다.

### **네트워크 격차: 네트워킹의 난제(Network Divide: Challenges of Networking)**

본 발표의 제목인 “네트워크의 격차” 는 컴퓨터 시대에 생겨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라는 용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정보격차라는 용어는 디지털 및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생기는 격차를 일컫는다. 이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정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능력의 불균형뿐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서의 불균형 또한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특정 사회 계층의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 접근성에서의 불평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능력 습득의 불평등을 가리킨다. 정보격차의 맥락 내에서 논의되는 그룹들은 성별, 소득 수준, 인종, 지역 등이다.”<sup>3</sup>

정보격차를 인용한 이유는 해외에 있는 연구원들과 홍콩 오피스 사이에 거의 매일 오고 가는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컴퓨터와 이메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연구원들이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에는 네트워크가 고르지 못하며, 현재 AAA 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

<sup>3</sup>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divide](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divide). Accessed: 20081016]

다음을 살펴보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의 21 개국이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트리엔날레(이하 FAAT)에 포함된다.<sup>4</sup> AAA 는 이 국가들 중 8 개국에 연구직을 두고 있다. 1999 년도에 설립된 FAAT 는 행사 때마다 동일한 21 개국에서 온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아시아 미술 발전에 대하여 조망하는 유일한 트리엔날레라는 면에서 독특하며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FAAT 를 참고로 한다면, AAA 는 앞서 말한 전체 국가들 중 연구원들을 통해 꾸준히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율이 40% 정도가 된다.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몽고와 같은 국가에서는 AAA 의 참여가 여타의 국가들에 비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렇게 “남겨진 국가들” 이 사운드 아트를 위한 인프라나, 더 나아가 현대 미술현장을 활발히 전개시킬 만한 수용력이 뒤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5 년에 AAA 는 현대 미술의 기록을 둘러싼 이슈들을 돌아보고 그 지역 내에서 지식을 공유하며 관리하는 플랫폼 건립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 워크숍을 기획하였다.<sup>5</sup> “동시대를 아카이브하기(Archiving the Contemporary)” 로 명명된 이 워크숍은 다른 예술 아카이브를 이해하고 함께 대화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기회가 되었다. 워크숍 이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고 제한된 자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기관과 아카이브 사이에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네시아 시각 예술 아카이브(전 cemeti Art Foundation)나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과 같은 기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전략이나 프로젝트를 모색 중에 있다. (우리가 훨씬 나중에야 아르코예술정보관과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을 알게 되었음을 시인해야겠다.)

이상은 아시아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AAA 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과 시도하지 않았던 것 위주로 언급한 것이다. 예술 비평가인 리 웡 초이(Lee Weng Choy)가 지적했듯이, 대체로 AAA 는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진정한 지역적[문화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sup>6</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의 동료인 나보디타 사카(인도 연구원)가 자신이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읊긴 아래의 글에서 ‘인도’ 를 ‘아시아’ 로, ‘국가’ 를 ‘지역’ 이라고 바꾸어 생각해보면 재미있게도 이 글은 AAA 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인도는 거대한 국가라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고민은 특정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의 여러 다른 지역 출신의 작가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를 광범위한 인도

<sup>4</sup> 21 개국은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몽고, 중국, 대만, 한국 및 일본이다.

<sup>5</sup> <http://www.aaa.org.hk/onlineprojects/webproceeding/index.html> 참고

<sup>6</sup> 리 웡 초이, “In search of discursive density.” *ART77*, 가을/겨울 호 2008, p.95. 원문: “작가, 학술, 그리고 관람자들을 고려하면서 역동적으로 운영되는 진정한 지역 기관들은 매우 드물다.”

예술계에 소개하는 기본적인 일을 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인도와 같이, 거의 매일 새로운 작가들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는 나라에서는 결코 끝나지 않을 네트워킹의 과정이다.<sup>7</sup>

감사합니다.

© AAA / Phoebe Wong 2008

---

<sup>7</sup> 나보디타와의 이메일 서신 내용 중 발췌

## **Network Divide: Reflections on Networking Asia [The Asia Art Archive Approach]**

Phoebe Wong, Head Researcher, Asia Art Archive  
Presentation at the Arko Arts Library & Information Center  
14 November 2008

---

Thank you to the Arts Council Korea for organizing this forum and inviting me as a speaker, which gives m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Asia Art Archive and to reflect on its work in light of networking in/of Asia.

### **AAA**

Asia Art Archive is a young organisation initiated in 2000 as a direct respons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As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s and events world wide. Based in Hong Kong, AAA, a non-profit organisation and registered charity, is dedicated to documenting the recent history of visual art from the region within an international context.

The first art resources centre / library and platform of its kind, AAA boast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collec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 material on contemporary Asian art in the world, with over 23,000 catalogued titles accessible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via its physical 4,000-square-foot space and searchable from its website.

From its inception, AAA has acknowledged its position in the field as more than a static collection of material waiting to be discovered. Through the regular initiation of educational and public programs by the Research+ Department, AAA endeavours to be pro-active in instigating dialogue and critical thinking, and in introducing as wide an audience as possible to this rich resource.

AAA acts not only as a valuable resource and 'idea' centre, but as a network for those in the contemporary Asian art field. By attending and participating in important exhibitions / programmes relating to art from Asia, AAA also plays an active role in recording events as they take place.

In 2007, AAA launched an endowment campaign with the goal to raise HK\$50 million (US\$6.4 million) in the next 3 to 5 years. The core capital of the endowment will be invested to provide annual support for AAA operations and programming initiatives.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is crucial to ensure the Archive with a more sustainable future.

### **Networking Asia**

With an Academic Advisory Board and research posts in the region, AAA acts not only as a valuable resource and 'idea' centre, but as a **network** for those in the contemporary Asian art field.

Before I move on to provide detail on how our research posts operate, may I briefly draw your attention to our Academic Advisory Board. There are a total of 38 members in 2008 - made up of noted academics, curators and critics in the region and internationally. We consult these well-informed and well-connected individuals from time to time over a number of issues such as the appointments of overseas researchers, AAA collection scopes, special projects conception, and the like.

The creation of research posts throughout the region has been key in helping to set up constant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hese posts have proven to be extremely important in providing a continuous presence in, and a bridge between respective countries, and the most convenient way to get material back and forth.** Currently we have nine research posts in the region - in China, Hong Kong, India, Japan, Korea, Pakistan, the Philippines, Taiwan and Thailand, which work closely with the research+ department in Hong Kong office.

We started off with only one full-time and two part-time research staff in Greater China area in 2002. Part-time research staff for Japan, Singapore, Thailand and Korea were recruited around 2004 and 2005. With limited resources, we could only afford to maintain two research positions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so we shifted the research post in 2007 from Singapore to the Philippines where the vibrant art scene urgently called for attention. We have had 9 research posts in place completed since the recruitment for our full-time researchers in India and in Pakistan. From this April onwards, the number of full-time research staff out-numbers that of our part-time staff – representing a ratio of 5:4.

The researchers we recruit are individuals who are plugged-in with their local art community before taking on their positions with AAA for their respective country. This local knowledge has proven to be essential in carrying out their work *in situ* confidently. On a routine basis, our researchers attend and document exhibitions and events, identify, collect and collate materials, and visit and interview artists and other professional practitioners in the field. They travel inside their respective countries whenever there are major exhibitions and events outside their stationed city. Material collected by them is sent to the HK office regularly.

When asking my colleagues overseas about the issues around networking, it is not uncommon to see the importance of trust in order to establish in-depth engagement with their respective art community.

Ringo Bunoan (Researcher for the Philippines):

I would say that the AAA research post in the Philippines has been fruitful in the sense that more people know about AAA and the importance of archiving, and they are willing to give /share their documentation. Of course, these come from personal interactions, which are very important in this kind of work. We need to establish trust and rapport with local people.<sup>8</sup>

Narawan Pathomvat (Researcher for Thailand):

The main issue here regarding networking is that the Thai art community is divided into several distinct groups according to one's association with academic/professional institutions. It's difficult to establish oneself as neutral and objective - people will try to put you in one bracket or another. Most people won't want to talk to or associate with people from other groups, so, in order to approach anybody here, you have to be introduced by somebody that the person likes and trusts.<sup>9</sup>

Another trajectory in networking is collaboration through projects and programs. Over the years, AAA has worked with a number of different organizations to initiate programs such as workshops, talks and symposia. Organisations include The Hong Kong Arts Centre (Hong Kong) and Art School (Hong Kong), The Substation (Singapor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Para-Site Art Space (Hong Kong),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and Guggenheim Museum (New York).

Here, let me highlight some current projects /efforts in which we collaborate with other organizations.

Initiated by our Researcher in the Philippines, Ringo Bunoan, the Archive is presently collaborating with the Lopez Museum in Manila to research Roberto Chabet who is known widely as the father of the Philippine avant-garde. This special research on Chabet is a monumental endeavor, covering nearly 50 years of the artist's work. As a partner institution, Lopez Museum will have exclusive local access to all the materials gathered on Chabet. Upon completion of the project in mid-2009, AAA and the Lopez Museum will receive both hardcopies and digital files of the photographs, writings, and other documents, for preservation and for public us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Amsterdam, Holland), the Archive provides

---

<sup>8</sup> From email communication with Ringo.

<sup>9</sup> From email communication with Narawan.

seed funds to Malaysia-based artist and researcher Ray Langenbach to kick off the preservation of his private collection of video documentation (spanning nearly 20 years) of performance art and theatre work in Southeast Asia. The first phase of the project (targeted to end in March 2009) is to convert 1000 hours of analog tapes into digital format, and the second phase involves annotations and contextualisation of the material.

As a partner organization, the Archive is going to join hands with The Substation in Singapore to develop a series of web anthologies entitled "Comparative Contemporaries". The Archive will host the anthologies from its website (the first series on Southeast Asia to be launch in mid-2009). The aim of this project is to build an online platform that provides a space for discussion and dialogue in the form of an anthology series that evolves over time.

Since 2006, we have started **the exchange of duplicated materials** with a number of art spaces and institutions in the region, they include, New Zero Art Group (an art collective and space in Yangon, Burma), A little bla bla (an alternative art space in Ho Chi Minh City, Vietnam), Queensland Art Gallery (Brisbane, Australia) and Singapore Art Museum (Singapore).

### **Network Divide: Challenges of Networking**

The title for this presentation is "Network Divide" from which I have appropriated the term "digital divide" in light of the computer age.

"The term digital divide refers to the gap between those people with effective access to dig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ose without. It includes the imbalances in physical access to technology as well as the imbalances in resources and skills needed to effectively participate as a digital citizen. In other words, it is the unequal access by some members of the society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unequal acquisition of related skills. Groups oft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digital divide include gender, income, race and location."<sup>10</sup>

I take on this appropriation because we literally rely tremendously on the access to a computer and email in terms of day to day communication between our overseas researchers and the Hong Kong office. Also, **we are well-aware that there is an uneven network** between locations with and without researchers.

Look at this. Of the 21 Asian countries and places from East Asia, S.E. Asia and South Asia included in the Fukuoka Asian Art Triennale,<sup>11</sup> AAA has research posts in 8 of them.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FAAT, established in 1999, is unique in the sense that it is the only triennial presenting an on-going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Asian art. They do so by exhibiting works from the same 21 countries in each edition of the Triennale. That is to say, by using the FAAT as a reference, the Archive is roughly networking 40% of the aforementioned sub-regions on a steady basis through our research posts. For many countries, such as Sri Lanka, Nepal, Bhutan, Bangladesh, Myanmar, Malaysia, Laos, Cambodia, Vietnam, Indonesia, Brunei, Mongolia, our work is **comparatively sporadic**. As a matter of fact, it is not difficult to point out that these "left behind countries" are also those that have less capacity to develop a sound art infrastructure and thus a contemporary art scene.

In 2005, AAA organized the first workshop<sup>12</sup> in Asia to look at issues surrounding the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art, and to call for the setting up of platforms for knowledge sharing and management in the region. The workshop, entitled "Archiving the Contemporary", gave us the opportunity to take the first steps to understand and develop a dialogue with other art archives. After

---

<sup>10</sup>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divide](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divide). Accessed: 20081016]

<sup>11</sup> They are: Pakistan, India, Sri Lanka, Nepal, Bhutan, Bangladesh, Myanmar, Thailand, Malaysia, Singapore, Laos, Cambodia, Vietnam, Indonesia, Brunei, Philippines, Mongolia, China, Taiwan, Korea and Japan.

<sup>12</sup> See web proceedings of the workshop, visit: <http://www.aaa.org.hk/onlineprojects/webproceeding/index.html>.

the workshop, we hoped to form an official network among like-minded organizations and archives in the region, so as to facilitate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to ensure that limited resources are being used in the best possible way. **We are however still seeking strategies** (and/or projects) that would solidify and strengthen affiliations of such kinds with institutions like Indonesia Visual Art Archive (formerly Cemeti Art Foundation), Fukuoka Asian Art Museum, etc. [I have to admit that we came to know the Arko Arts Library & Information Center and the private art archive of Mr Kim Daljin much later.]

The above has shown the AAA's approach in networking Asia – what we have done and have not done. All in all, as art critic Lee Weng Choy has noted, the AAA is among a “few truly regional [cultural] institutions” in Asia.<sup>13</sup> Yet at the same time, when my other colleague Nabodita Sarkar (Researcher for India) ponders on her work, amusingly it still describes the status we are in if I imagine substituting ‘India’ with ‘Asia’ and ‘country’ with ‘region’:

India is an enormous country, which itself became a challenge for a sole person to encompass. The ongoing challenge started while doing the basic ground work, which was to introduce Asia Art Archive to the vast Indian art community, by not constraining and confining to one particular city but by contacting artists from various regions and different parts of India. ... It's a **never-ending process of networking**, especially for a country like India, where almost everyday I get to hear and know about a new artist.<sup>14</sup>

Thank you.

© AAA / Phoebe Wong 2008

---

<sup>13</sup> Lee Weng Choy. “In search of discursive density.” *ARTIT*, Fall/Winter 2008, p.95. The original line reads: “There are few truly regional institutions that have been as active and relevant to artists, academics and audiences.”

<sup>14</sup> From email communication with Nabodita.



# 인미공 라이브 아카이브

IAS Live Archive

강 성 은

(Sung-eun Kan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인미공 아카이브는 인미공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 워크숍,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의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결과물들이 사진, 영상, 인쇄물 등 다양한 형태로 아카이브에 축적된다. 인미공 아카이브는 이렇게 ‘기록보존소’ 라고 번역되는 아카이브의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축적된 아카이브를 통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촉발되는 등 다양한 실천이 가능한 라이브 아카이브이다.

‘라이브 아카이브’ 는 2005년 인미공이 5년간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아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당시 아카이브의 공간을 구성하는 가구 제작을 맡은 작가 이미경이 붙인 이름이다. 이미경은 인미공 아카이브의 특성을 단번에 파악하고 물리적으로도 이동이 자유롭고 배치가 손쉬운 단위의 가구를 제작했고 ‘라이브 아카이브’ 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그 안에 담은 자료의 기초 목록은 임민욱과 프레데릭 미송 두 작가로 이루어진 피진 콜렉티브pidgin collective가 맡았다. 이들은 “다양한 전공분야의 접근이 가능한 미래형 아카이브로, 급진적 프로젝트의 출현, 작가와 연구자의 도발적 협업을 가능케하며, 영구적 진화를 거듭하는 대안적 아카이브를 지향 한다.” 라는 인미공 아카이브의 미션을 설정하고 구입할 자료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미공 아카이브는 본격적인 구축의 초기단계에서 실제 그것을 사용한 대상인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작가들, 연구자들에 의해 자료가 보강되기도 하고 목록이 세분화되기도 하면서 더욱 풍성한 아카이브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양적인 팽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인미공 아카이브는 자료의 형태를 구분하기 보다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단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먼저, 인미공 아카이브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미공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록물들을 모아놓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기초 연구 자료를 따로 구분해놓아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나온 기록물들, 예를 들면 강연이나 워크숍 현장을 녹화한 영상 자료와 녹취자료, 사진자료를 따로 구분해 보관한다. 따라서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미공 아카이브에는 동시대미술의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어 연구자, 작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이다.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대안적인 서적과 잡지, 전시 및 국제적인 비엔날레와 페스티벌의 자료집, 그리고 실험영화 및 싱글채널 비디오 등 영상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이 때, 인미공의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도록은 인터넷 서점이나 국제 도서배급망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교환협정을 통해 들어오는 자료들은 따끈하고 생생한 동시대 미술현장의 소식을 전해준다.

인미공 아카이브는 큐레이터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기도 한다. 인미공에 마련된 포트폴리오 컬렉션은 국내외 큐레이터들을 불러 모은다. 국내 큐레이터는 물론 한국작가 리서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해외의 큐레이터가 자율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해외큐레이터들의 작가 리서치를 도와주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료의 교환이 이루어져 인미공 아카이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포트폴리오 컬렉션은 작가와 큐레이터를 연결해주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7년초, 뉴질랜드에서 고벳-브루스터 갤러리의 큐레이터 메르세데스 비센테 Mercedes Vicente 는 인미공을 방문하여 작가리서치 후 공동 큐레이팅을 제안하였고, ‘엑티베이팅 코리아’가 뉴질랜드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인미공 아카이브는 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리소스센터로서, 그리고 국내/외 작가와 큐레이터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기관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아카이브의 다양한 형태를 이용한 외부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여러 형태의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진단해보기도 하고 아카이브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5년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갤러리+다이어리’는 김수범이 10년간 전시장을 비디오카메라로 기록한 개인의 아카이브를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그런가하면 같은 해 e-flux에서 작가의 싱글채널 비디오를 소개하는 EVR(e-flux video rental project)은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된 작가들의 작업을 집으로 빌려갈 수 있게 만들어 전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영상작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이다.

2006년 ‘큐레이터의 사물함Curating Degree Zero Archive’은 100여명의 전시 기획자의 전시기획 자료를 가지고 이동하는 프로젝트인데 초청하는 기관에 따라 각각의 방법으로 자료들을 재해석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전시기획에 대한 방법론과 다양한 토론을 이끌어 내는 게 목적이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다시 개인의 아카이브를 인미공을 끌어들여왔다. ‘대화 Surviving the future-Y의 서가’가 그것인데, 한 작가의 서가에서 가지고 온 책을 다른 작가가 분류하고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아카이브의 다른 해석과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면 가장 최근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시네마틱, 무빙 이미지의 확장: 아티스트 필름 & 비디오 쇼케이스 2008’은 인미공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 아카이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것이다. 아티스트 필름과 비디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전시, 스크리닝, 강연 및 무빙 이미지 아카이브로 구성하였다.

아카이브를 이용한 프로젝트는 단발성 토크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했다. 2005-2006년에 진행된 ‘오후다섯시’는 여러 형태의 아카이브 방식을 소개했고 그것으로부터 개인적인 기억과 공동의 기억을 끌어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인미공 아카이브는 인미공의 활동흔적을 저장하는 저장고로써 뿐만 아니라 인미공의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의 활동영역으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하는 ‘살아 있는’ 아카이브이다.